

집

박경숙

갈증 때문에 눈이 떠졌다. 한참을 잔 것 같은데 아침은 아직 멀었는지 주변은 침침하기만 했다. 어디 들풀 우거진 곳, 금방울 같은 별들이 짙랑대며 내게로 떨어져 내릴 듯한 산등성이 풀숲에서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별빛은 휘황한데 잠 속에서도 왜 그리 춥던지. 꼭 어딘가에 버려져 있는 듯 외롭고 절박한 느낌이었다.

어둑신한 시야에서 선팅을 한 유리창처럼 검고 네모난 윤곽을 드러내는 51인치 플라즈마 TV, 그 옆 어느 도예가의 선물이라는 어린아이 키만한 자기꽃병엔 조화몽치가 우수수 꽃혀 있다. 산발한 머리카락처럼 어두운 공간으로 뻗어나간 꽃들은 왜 그런지 떨고 있는 것처럼 보



1994년 미주한국일보로 등단, 2005년 제11회 가산문학상, 2007년 장편 소설 『약방집 예배당』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앙일반 국내도서부문 최우수상 수상. 저서: 소설집 『안개의 칼날』, 장편소설 『구부러진 길』, 『약방집 예배당』, 현재 국민일보 오피니언 먼 에세이 연재 중.

였다. 술이 덜 깬 내 눈이 초점을 잘 못 맞추는 탓이라. 벽 모서리엔 뒷면이 거울로 된 장식장 속에 크고 작은 사기인형들이 모여 앉아 있다. 그것들조차 제 모습과 거울의 어스름한 상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선뜻 가슴을 스치는 두려움……. 조화몽치나 사기인형들은 생명 없는 부동체들인데……. 나는 혹 세상에 무엇인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나는 거실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아, 여긴 집이었구나!

들풀 우거진 숲 아닌 것이 다행스러웠지만, 왜 그런지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섭섭함이 가슴을 스쳤다. 어찌면 집이 아닌 곳에 혼곤히 누워 깨어나지 않는 잠을 자고 싶었던 걸까.

부스스 윗몸을 일으키자 머릿속이 바람에 물리는 호수처럼 흔들렸다. 아니 내 전체가 흔들렸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마치 누군가의 손 끝에 아슬아슬 쥐어져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잔의 물처럼……. 사실 내 생이란, 곧 깨어질 듯 불안한 유리잔 안에서 이리저리 출렁이는 탁한 물 한잔이 아니겠나. 말갭던 기억을 언젠가부터 잃어버린…….

겨우 몸을 세우고 비틀비틀 부엌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벌컥 열었지만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살림을 포기하고 만 것일까? 이렇게 텅 비워놓을 수가…….

냉장고 안 불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싱크대 표면으로 좀 긴 역삼각형의 빛 그림자가 졌다. 나는 슬그머니 도로 닫아버리려는 냉장고 문을 붙들고 선 채 머리를 도리질했다.

이게 아니었는데…….

냉장고가 뿜어내는 찬 기운에 나도 모르게 진저리가 쳐졌다. 부르

르 몸을 떨다 분풀이를 하듯 공연히 냉장고 문을 탕 닫아버렸다. 순간 고요하고 어두운 부엌 구석구석이 수런수런 울려 왔다. 늘 냉장고 위에 얹혀 있던 크고 작은 쟁반 몇 개가 그 진동에 딸그락거렸다.

“에이 씨!”

수돗물이나 받아 마실 요량으로 몸을 돌리던 찰나 뭔가가 내 발치로 툭 떨어져 내렸다. 아주 작은 소리가 울렸으나, 가볍게 발등을 스치며 어둠 속 공기를 가른 그것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비밀스런 뉘앙스를 풍겼다.

또 내 생이 그만 찢어져버릴 만한 어떤 이변을 그 작은 소리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가느다랗게 숨을 내뿔었다.

그것이 뭔가 싶어 등을 구부리고 부엌 바닥을 두리번거렸다. 금방 발끝에 감지된 것 같은데 시야가 어두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편안했지만 하는 수 없이 벽에 붙은 스위치를 올렸다. 절전을 할 요량으로 부엌 천장에 길게 붙여놓은 형광등이 두어 번 깜박이다 푸른기 도는 빛을 일시에 쏟아내었다. 나는 잠시 빛에 잘 적응되지 않는 눈 때문에 형광등처럼 눈을 깜박였다.

빛을 쏟아내는 무생물인 형광등보다, 살아 있는 내 눈은 그 빛을 감지하기 위해 더 처연하게 깜박였다. 눈이 없다면 세상에 빛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으련만, 나는 왜 그런지 내 눈이 형광등보다도 열등한 물건인 것처럼 느껴졌다.

불빛에 환히 드러난 베이지색 부엌 타일 위에, 냉장고 반대편에 나동그라진 작은 물체가 보였다. 나는 나직이 숨을 머금으며 허리를 굽히고 그것을 주워 올렸다. 그건 초록색 종이옷을 입은 네모난 그린티백이었다. 그녀가 밤이면 침대 베개 밑에 밀어넣던 꼭 콘돔백 만한…….

나는 왜 그것을 주워 들고 콘돔백을 떠올린 건지……. 쿵 웃음이 나

왔다. 목구멍 깊이에서 나도 모르게 울음처럼 치민 짧은 웃음에 갑자기 가슴 속이 허전해 왔다. 어쩌면 그녀와 나 사이엔 녹차백의 네모보다는 콘돔백의 네모가 더 익숙했던 때문이리라.

파스텔 톤이 은은히 감도는 우아한 자기잔에, 행여 녹차 한잔을 우려 그녀와 마주앉아 그윽하게 즐겨본 적 있던가. 아침이면 잠에서 덜 깨어난 머리를 각성시키려 서둘러 마시던 커피, 그나마 빵 한 조각은 미처 삼키지 못하고 우물우물 씹으며 허둥허둥 각자의 차에 나누어 타고 떠나버리던 이 집…….

때로 집은 있어 뭐하나며 서로 취해 들어왔던 금요일 밤이면, 어느 허전한 저녁, 내가 사들고 와 부엌 캐비닛에 넣어두었던 몇 병인가의 소주 마개를 다 따내어 각자의 입속에 물처럼 부어 넣었다. 그녀의 배개 밑엔 열흘도 넘게 사용하지 못한 콘돔백이 숨어 있었고, 나는 서로의 기억 회로에 잘 새겨지지도 않는 잠자리를 했다.

토요일 대낮이 되도록 지난밤의 취기가 깨지 않아 이불 속을 헤엄치듯 몽기적거리다 몸을 일으켰을 때, 내 발치에서 서걱거리던 찢어진 콘돔백이 간밤의 일들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부석한 얼굴에 슬리퍼를 끌고 한인 타운 어디쯤에 나와 해장국을 후르륵거릴 때면 이 도시엔 또다시 밤이 오고 있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어쩌면 일요일부터였다. 주중 어느 날보다도 말쑥하게 차려입고, 중고차이긴 해도 벤츠 350을 교회로 달렸다.

부동산 중개인을 하려면 무엇보다 잘 차려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야 한다는 상식을 지켜야 했다. 그와 더불어 모든 비즈니스는 인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불변의 사회 정칙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가볍지 않게, 그러나 너무 깊지도 않게 사귀어두는 것도 필수요건이었다.

이왕이면 돈은 많고 귀가 얇은 사람이면 좋았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서 귀가 얇은 사람이란 사실 거의 없었다. 나름대로 부를 누리는 부류의 사람들은 무조건 남의 말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예 아무도 믿으려들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 저절로 생겨난 생존원리인지도 몰랐다.

믿어라! 그러면 다 뺏기거나 이용당할 것이요. 믿지 말고 경계하라. 그러면 네 것만이라도 지킬 것이다.

나 혼자 잘 중얼거리던 그 말은, 인류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성경 안의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구절과는 정반대되는, 그러나 성서 밖의 세상 진실이었다.

때로 우린 어쩔 수 없이 미인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의심 많은 남자 부자에게, 나는 세상을 불신하는 여사님들에게…….

일요일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서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우습게도 그녀는 나에게 어느 여사님에게 잘 보일 넥타이를 골라줬고, 나는 그녀에게 어느 사장님에게 잘 보일 미니 스커트를 골라줬다.

모든 비즈니스는 표정 관리가 중요했다. 그녀는 나를 만나기 전 코를 높이고 치아교정을 했다. 어쩌면 눈 꼬리도 찢고 턱도 깎아냈을 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보다 더 여러 군데를…….

그러나 부자연스레 올라선 콧대는 누가보아도 성형효과란 것을 금방 알아채고 마는 것이라 그녀는 나를 만나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자 아주 조금만 손을 봤다고 고백했다. 유난히 가지런한 앞니는, 그녀가 잠자기 전 교정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금속성 ‘리테이니’를 아래윗니에 끼워 넣는 것을 보고, 미용이빨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예배가 끝난 일요일 오후면 누구네 집에서건 흥건한 파티가 벌어졌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이건 기필코 그 파티장소를 알아내야 했다. 아

무도 파티를 벌이지 않는 일요일이면, 그녀와 나는 어질러진 우리 집을 서둘러 치우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바비큐 파티를 벌였다.

기름기 묻은 입술자국으로 모서리가 더러워진 술잔이 흔들리고, 숯불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에 취기에 어린 사람들의 코가 짐승처럼 벌름거렸다. 웃음과 낄두리가 왁자지껄해지며 밤이 깊어 가면, 우리 집 부엌엔 산더미처럼 설거지거리가 쌓이고, 뒷마당 바비큐 화덕의 죽어가는 숯불 위엔 타다 만 고기조각이 누린내를 풍겼다.

그녀는 서둘러 화장을 지우고 피부미용을 위해 잠자리에 들어버리고, 나는 자정이 넘도록 혼자 설거지를 했다. 남자는 외모보다는 말수 완이 더 비즈니스에 중요하다면서, 그녀는 잠이 부족한 내 푸석한 안색에 대해선 걱정도 하지 않았다. 사실 빼어나지 못한 나의 외모를 그녀는 한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별로 크지도 않은 키, 딱 벌어지지도 못한 어깨, 희지도 검지도 않은 얼굴은 잠을 푹 잔다 해도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평균선 이상의 화려한 미인인 그녀의 쪽 빠진 각선미와 화장이 잘 먹어 들어간 가름한 얼굴을 흠족스레 바라보며, 나는 늘 그녀가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부동산 브로커라는 걸 잊지 않았다. 그 많은 설거지를 혼자서 다 해야 할 때면 유독 그녀가 얼마나 능력 있는 여자인가를 곱씹어보곤 했다.

녹차백을 손에 들고 선 채 긴 숨을 내쉬었다. 그것이라도 우려 마셔야 할 것 같았다. 주전자를 찾아 물을 받아 넣고 스토브 위에 올렸다. 아침이면 그녀가 화장을 하는 동안 커피를 내리는 일보다는 덜 번거로웠다. 싱크 캐비닛을 열어 손에 잡히는 잔 하나를 꺼내 싱크 위에 내려놓았다. 요즘 들어 사용한 기억이 없는 검은 머그잔이었다. 얼마간의 먼지가 컵 안에 내려앉아 있을 거란 짐작이 들었지만, 그냥 녹차

봉투를 찢고 티백을 꺼내 컵 안에 넣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서 있으려니 입 안이 쓰디써 왔다. 입 안에 연기를 가득 채우고 싶어졌다. 나는 거실로 가 소파 근처에 땡개쳐진 내 자켓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 가볍게 팔려 나오는 말보로 갑은 움푹 구겨진 채 겨우 두 개비가 남아 있었다. 어젯밤 술집에서 웨이터에게 담배를 시킨 것 같았는데 어제 다 피워버렸는지. 어쩌면 같이 있던 영배가 피워댄 건 아닐까.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가 담배를 피던 장면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긴 그는 담배를 끊은 지 오래라고 했던 것 같았다.

하필 이런 시점에 왜 영배를 만나게 된 것일까.

빠- 주전자가 물이 끓는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거실의 어두운 창 밖을 내다보며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섰다. 스테인리스 주전자 주둥이에 덮인 휘파람 뚜껑 사이로 김이 새어나오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면 주전자는 제 풀에 터지고 말 것이다. 저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김이 새어나갈 통로조차 없을 테니까. 나도 어디로 휘파람이라도 불어야 할까.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새어나가게 하려면……. 아니 폭발하지 않으려면…….

주전자를 들어 녹차백이 부러진 잔에 물을 부었다. 하필 검은 색 머그잔을 꺼냈던 탓에 차가 우려져 나오는 빛이 가늠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꺼মে게 보이는 물이 출렁이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찻잔 모서리에 걸쳐진 티백 꼬리가 내가 걸음을 땔 때마다 덜렁거렸다. 부엌에서 비쳐 나온 불빛에 어스름히 밝아진 거실 안은 마치 조명을 받고 있는 무대 위 같았다.

나는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소파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오늘도 안 들어올 모양이군. 이제 다 끝난 것이야.”

찻잔을 커피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던지

뜨거운 찻물 몇 방울이 손등으로 튕겨 나왔다. 뜨거움에 깜짝 놀라 손을 움츠리다 셔츠에 손등을 문질렀다. 입으로 호호 불어보았지만 조금 따가운 느낌이 남아 있었다. 손등처럼 가슴 속이 조금씩 따끔거리려 왔다.

“외모가 그렇게 화려한 여자를 택한 건 잘못이었어.”

다시 혼자 중얼거려보는 말 속엔 내가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그녀를 택했다는 스스로의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하긴 나는 흠집이 없는 과일을 고르듯 오래오래 그녀를 관찰한 뒤 선택했다. 그 눈에 띄는 외모가 아닌, 그 외모 속에 숨은 그녀의 능력을 저울질하면서…….

누군가 남성편력이 많은 그녀를 왜 택하느냐고 간섭했지만, 그런 건 개의치 않았다. 나에겐 오직 ‘집’, 집을 마련해 줄 그 여자가 필요했으니까.

아버지는 솜씨가 좋았다. 구청에서 나온 철거반에 의해 ‘집’이 뜯겨나가면, 그 허름한 자재들을 리어카에 싣고 다른 곳으로 옮겨 하루 만에 똑같이 그 ‘집’을 지어내었다. 일곱 살짜리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옆에서 못을 들고 있다가 아버지의 입에 물린 못이 어디엔가 잘 박히고 나면 다른 못을 아버지 입에 물려주는 것이었다.

남의 집 담장을 벽삼아 삼면을 막고 가운데 출입문을 내면 집이 완성되었다. 안에는 연탄아궁이 위에 구들돌을 놓고 골판지를 깔아 방을 만들면, 자연히 아궁이 앞은 부엌이 되었다. 남의 집 일을 나간 어머니가 돌아오면 또 어디선가 물을 길어다 그 아궁이에 밥을 지을 것이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는 집을 짓는다고 일을 제졌지만, 내일은 오늘 집을 짓느라 피로가 쌓였다며 또 빈둥거릴 것이다. 하긴 그는 어쩌면 돈을 벌어도 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사실 자주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말이었다.

“이 웬수야! 차라리 집구석에나 있어. 돈만 몇 푼 생기면 기집질이 라니……. 우리 형편에 무슨 오입이여?”

어머니 입에서 그런 궁시렁대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날이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장편이 연출될 것인지 알고 있었다. 부리나케 집을 나와버리는 내 뒤에서 벌써 어머니의 머리채를 거머잡느라 씹씩대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차라리 죽여 이놈아! 나를 죽여!”

악을 쓰는 어머니의 쇠 된 목소리……, 그러나 늘 아버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퍽! 퍽! 어머니를 두들겨 패느라 아버지가 만들어 내는 그 둔중한 소리는 그 지겨운 싸움판의 아버지 나름대로의 언어였다. 퍽! 어머니의 살에 아버지의 주먹이 박히는 소리……. 퍽! 어딘가 어머니의 연약한 뼈에 아버지의 발길이 적중하는 소리…….

그 봄이 가까웠던 어느 날도 나는 그 소리들을 듣지 않으려 두 귀를 막고 골목을 마구 달려 나갔다. 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는 거의 골목을 빠져나올 때까지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눈까지 질끈 감고 마구 내달던 나는, 큰길과 만나는 골목 끝쯤에서 무엇인가와 탁 부딪치고 말았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를 한 대 갈기는 소리와 흡사했다.

“아이쿠!”

누군가의 외마디에 눈을 번쩍 뜨자 내 포레 정도로 보이는 사내아가 벌렁 나자빠져 있었다. 아마도 나와 정면으로 이마를 부딪친 것 같았다. 나도 앞으로 고꾸라질 뻔하다가 겨우 균형을 잡고 섰다. 내 이마도 한가운데가 얼얼했다.

녀석은 몹시 아픈 듯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엉거주춤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나면서도 나를 원망하는 빛이 없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내 볼을 스쳐가다 단정히 이발한 그 애의 상고 머리 앞부분을 흔들었다. 그 애는 영배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로 집을 지은 그 담벽 안에 사는 아이였다.

“너 우리 집 담벽에 붙은 그 하꼬방에 사는 아이구나. 나는 그 집에 산다.”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말했다. 나는 윤기가 반지르르한 녀석의 뽀얀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그때서야 녀석이 사는 곳은 ‘집’ 이고, 내가 사는 곳은 집이 아닌 ‘하꼬방’ 이라 불린다는 걸 처음 알았다.

몹시 기분이 나빠졌지만 나는 아무말없이 녀석을 스쳐지나갔다. 그 리곤 혼자서 가만히 되뇌었다.

“집. 집. 집…….”

나는 큰길 건너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어느 담장아래 쪼그리고 앉았다. 허름한 내 옷을 파고드는 바람을 얼마간은 피할 만한 곳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박전이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을 있어야 할 것이다. 담벽에 기대앉고 보니 그곳은 언젠가 우리 집이 지어졌던 곳이었다. 아니 영배 말에 의한다면 우리 ‘하꼬방’이……. 하지만 아버지가 그 담벽에 애써 집을 짓자마자, 집주인이 벼락같이 화를 내며 당장 뜯어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 아버지는 모른 척 며칠을 버텼다.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하여 철거반원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아버지는 그 며칠 동안 또 우리 집을 지을 다른 담장을 찾아다녀야 했다.

그런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던지는 기억에 없다. 일곱 살이 되던 이른 봄 영배네 담장에 집을 지은 며칠 뒤 어머니는 그렇게 악을 썼고, 아버지는 씩씩댔고, 나는 영배와 이마를 부딪쳤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담장 안의 부잣집 아들 영배는 나와 친구가 되었다. 그 봄 그 애와 나

란히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나서, 나는 자주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가 영배와 함께 숙제를 하곤 했으니까.

일거리가 없다며 방 안에서 한쪽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앉았던 아버지는 무슨 콧노래인지를 부르며 발가락을 까닥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동네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아버지의 하는 양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둘을 번갈아 보다가 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에 얼른 골목으로 나와버렸다.

어느새 따가운 햇빛이 골목 안에 가득했다. 이름 석 자를 배우고, 덧셈 뺄셈을 배우는 동안 봄의 꼬리가 여름의 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우리 ‘하꼬방’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래도 지붕으로 얹어 놓은 슬라브 끝부분이 추녀 역할을 하는 덕에 내 얼굴로 그늘이 졌다. 안은 잠잠한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릇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몇 번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왜 그런지 햇빛과 공기마저 먹먹하게 멈춘 것 같던 그 조용한 순간, 내 눈앞엔 푸른 별판이 하나 나타났다. 그 속을 마구 뛰어다니던 그리 멀지 않던 기억과 함께…….

아버지는 할아버지 방에 불이 꺼지자 외양간에 매어놓은 송아지를 끌고 나왔다. 그것은 늙은 농부인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 아버지가 어디론가 송아지를 끌고 가서 돈과 바뀌오는 동안 어머니는 보따리를 싣다. 나는 아무것도 물을 권리가 없었다. 이른바 야반도주였다. 농부가 되기 싫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할아버지와 입씨름을 벌이던 아버지는 졸리움에 자꾸 눈을 비비는 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달렸다. 나는 큰아버지 네가 쓰는 건넌방에 잠든 사촌 형제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덜컥했지만, 그것을 아버지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느라 종종대는 나를 내려다보며 아버지는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연신 검지손가락을 입

술에 갖다 대었으니까.

떠나온 것이 모내기 전이었으니 아마도 꼭 1년은 된 것 같다고 며칠 전 어머니가 혼잣말하는 걸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아버지 집을 떠나왔고, 그때는 남의 집 담장에 잇댄 이런 판잣집이 아닌, 그래도 ‘집’에서 살았다는 걸 기억했다.

성격이 순한 영배는 뭐든 내 말을 잘 들었다. 제 엄마가 사다준 과자도 몰래 내게 나누어주곤 했지만, 내가 사는 곳을 집이 아닌 ‘하꼬방’이라 발음한 그 녀석을 나는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다.

골목 안에 머무는 동안은 그 애와 나의 삶이 지척에서 ‘집’과 ‘하꼬방’으로 나뉘었지만, 학교에 가면 그런 구별이 필요 없었다. 나는 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옹다옹하는 ‘하꼬방’을 잊어버리려고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나 영배는 먹을 것이 쌓여 있고, 제 어리광을 받아주는 ‘집’ 생각을 하느라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1학기가 끝났을 때 나와 영배의 석차는 ‘집’과 ‘하꼬방’만큼이나 벌어졌다. 속상함을 감추며 한참이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영배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를 그 집에 불러들였다.

“아이가 똑똑하니 없이 살아도 나보다 낫군요. 이제 날도 더운데 그 물지게를 어떻게 지어 나르겠어요. 내가 담 너머로 호스를 대어줄 테니 물을 받아서 써요.”

잘 사는 여인네 티가 완전한 영배 어머니의 나직한 말에 가난한 내 어머니의 여윈 얼굴이 화들짝 퍼졌다.

“그래도 물 값은 내야지요.”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건너뛰어 냉큼 말해버렸다.

“물 값은 무슨……. 우리 영배하고 그 집 아이하고 잘 놀게나 해줘요. 우리 아이는 어딘가 좀 열떠서 다른 아이들 놀림감이 되기 싫지요. 공부 잘하는 그 집 아들이 옆에 다니면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요.”

어머니는 한순간 표정이 의기양양해졌지만 금세 고개를 숙여버렸다.

“고맙습니다.”

가까스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영배의 집을 나온 어머니는 우리 판잣집에 들어서서야 내 손을 잡고 마음껏 웃었다.

“우리 아들이 효자네. 공부 잘해 영배네 물을 공짜로 쓰게 생겼으니 말여.”

나는 어머니의 거친 손에 손목을 잡힌 채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올려다보았다.

그날은 아버지도 공사판 허드렛일을 다녀왔고, 어머니는 모처럼 다소곳이 아버지 밥상 앞에 앉았다. 몹시 더운 밤이었지만 나는 저녁을 먹고 나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엄마 무릎에 땀띠 나. 이 녀석아!”

땀내 나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야단치듯 말하면서도 웃음을 머금었다. 나는 어머니의 웃음을 올려다보다 스르르 잠이 든 것 같았다.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인가가 나를 자꾸 깨우는 듯 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귀에다 자꾸만 숨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 입김이 너무 덥고 귀찮아 돌아누웠다. 그래도 그것이 자꾸만 내 귀를 따라왔다.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더운 공기의 움직임이었다. 시끄럽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는데 성가셨다. 문득 오늘날은 어머니 아버지가 큰소리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잠속에서도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니 더 자도 될 거라고, 눈을 뜰 필요는 없을 거라고…….

그런데도 눈이 떠졌다. 창문을 다 열어놓았는데도 좁은 방안은 열

기로 후덥지근했다. 벽을 향한 채 모로 누워 잠들었던 나는 등 뒤의 이상한 기운에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우리 집과 열댓 걸음쯤은 떨어져 있는, 영배네 대문 께에 세워진 가로등 불빛이 활짝 열린 우리 집 창문 안으로 푸르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 푸른빛 아래서 무엇인가가 꿈틀댔다.

나는 한동안은 그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물끄러미 바라볼 밖에 없었다. 불빛이 그 꿈틀거림을 따라 조금씩 움직이자 나는 그것이 엮드린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다. 확실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몹시 힘들고 지쳐보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꾸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왜 그런지 아버지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얼른 돌아누우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갑자기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걸 알았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막 고개를 두리번거리려던 순간 어디선가 긴 숨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긴 숨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 숨과 비명의 중간 소리랄까.

나는 아버지 가슴 아래서 고개를 쳐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푸르고 어스름한 불빛 속에 고개를 뒤로 젖힌 어머니의 옆얼굴……. 나는 어머니가 결코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깊고 깊은 숨소리라는 것도…….

나는 돌아눕는 대신 아버지에게 들길까봐 얼른 눈을 감았다. 긴 땀 박질을 하고난 듯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다. 잠시 후 어머니와는 조금 다른 아버지의 긴 숨소리 끝에 방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조금씩 느려지는 내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으로 가고 있었다. 뭔가 슬픈 듯한 느낌이 내 전신을 이불처럼 감싸왔다. 그렇게 더운 밤이었는데

그것은 내 몸에 몹시 차갑게만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름방학의 첫날이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영배네 집으로 들어갔다. 수돗가에서 세수를 하던 녀석은 얼굴에 물을 묻힌 채 반가운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건을 들고 녀석 옆에 서 있던 그 집 부엌 아주머니가 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나는 아주머니가 세수를 마친 녀석 얼굴의 물기를 말끔히 닦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젖은 수건을 툭툭 털며 그녀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영배 옆으로 바짝 다가갔다.

“너 엄마랑 같이 자냐?”

느닷없는 내 질문에 잠시 어리둥절하던 녀석이 갑자기 씩 웃음을 날렸다.

“임마! 사나이 대장부가 어찌 엄마랑 자. 나는 내 방에서 잔다. 저기 이층 너랑 숙제하던 방…….”

“그 방은 군대 간 너네 삼촌 방이라며?”

“아니……. 내 방이기도 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던지 부엌 아주머니가 현관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영배야! 너, 나랑 자잖아.”

“아이 씨! 아줌마는!”

내내 의기양양하던 녀석은 금세 짜증을 내며 집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날이 더워 일부러 열어놓은 현관문까지 쿵 닫고 들어가버리는 영배를 바라보다 나는 우두커니 그 집 마당가운데 서 있었다. 세수를 마친 영배가 덜 잠근 수도꼭지에서 툭툭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옆 담장으로 짙레 넝쿨이 뻗고 하얀 꽃이 담을 타고 넘을 듯 피어 있었다.

“아아!”

머리 위에서 들려온 소리에 고개를 쳐드니 옷을 말끔히 갈아입은 녀석이 이층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선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 봐! 나는 2층에서 자잖아. 넌 네 방도 없지? 메롱!”

웬만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던 녀석이 혀를 날름거리며 나를 약 올리고 있었다. 제 댄엔 혼자 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킨 것이 무안했던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2층에 몇 번인가 올라가 본 적이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면 커다란 유리창으로 베란다가 내다보이는 넓은 방엔 내가 생전 처음 본 폭신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 가운데엔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우리 집 소반보다 조금 높은, 그러나 우리 집 소반과는 비교도 안 되게 윤이 나는 둥근 테이블이 가까이 다가가면 얼떨떨한 내 얼굴을 거울처럼 비추곤 했다. 그리고 한쪽 벽에 달린 문을 열면 바로 그 녀석이 제 방이라 주장하는 아담한 방이 나왔다. 책이 빼곡한 책꽂이와 마루만 큼이나 넓어 보이는 책상이 있었다.

녀석의 혀는 막 번져가는 아침 햇살 속에서 분홍빛으로 날름거렸다. 나는 고개를 젓히고 그 모습을 노려보다가, 왜 그런지 어젯밤 우리 집 어둠 속의 수상스런 움직임을 연상했다. 녀석의 헛바닥과 그 한밤의 수상한 기운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나는 무척 기분이 나빠져 팽 돌아서서 영배의 집을 나와버렸다. 우리 집 문간에서 아버지가 세수를 하고 있었다. 영배네 담장을 넘어온 푸른 고무호수가 골목에 질질 물을 흘렸다.

찌그러진 알루미늄 대야에 물을 받아 허푼허푼 얼굴을 씻는 아버지를 나도 모르게 노려보았다.

집……. 집에 산다면 어젯밤 그 수상쩍은 아버지의 몸짓을 느낄 일은 없었을 것 같았다. 나는 새삼 영배 말대로 내가 사는 곳이 집이 아닌 ‘하꼬방’이란 걸 다시 생각했다. 갑자기 분기가 치밀었다.

나는 양 주먹을 틀어쥐고 혼자 으으으- 이를 앙다물었다. 세수를 마친 아버지가 목에 걸쳐진 수건을 벗겨 얼굴을 닦다 나를 바라보았다.

“이놈이 아침부터 뭐가 화가 나서 이러냐?”

아버지의 커다란 손에 내 목덜미가 막 잡히려는 순간, 나는 마구 내 달기 시작했다. 골목을 달려 큰길로 나왔다. 큰길을 사이에 두고 이편과 건너편엔 여러 개의 골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골목들엔 크고 작은 집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나는 열기가 더하는 공기 속에, 자꾸만 내 앞을 스쳐가는 자동차가 내뿜는 매캐한 매연을 삼키며 그만 울음을 터트렸다.

두어 모금 마신 녹차가 내 손에 들린 찻잔 안에서 식어가는 동안 창밖이 조금씩 환해져 왔다. 어젯밤 커튼을 닫지 않아 어둠만 담아내던 유리창 너머로, 건너 집 현관 앞 잘 가꾸어진 꽃들도 부스스 잠을 깨는지 분홍, 보라, 노란색으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주말 그 집 미국인 부부는 열심히 꽃모종을 했다. 내가 그 앞을 지나며 인사치레로 물어본 말에 꽃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장황하기만 했다. 막 연약한 뿌리를 내려얹은 제라늄과 임페이션트 주변 흙을 꼭꼭 누르며, 꽃송이가 큰 베고니아가 심고 싶었지만 현관 앞 작은 화단에 어울리지 않아 그만두기로 했다는 말까지는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 뒷말에 더 집중하지 않았던 건 내 머리가 수용할 수 있는 영어해독의 한계 때문인지도 몰랐다.

초로의 그 부부는 두어 번쯤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들긴 적이 있었다. 한창 파티가 무르익어가던 어느 밤이었다. 노래방 기계의 볼륨이 최고치로 오르고 손님 중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악다구니를 쓰던 즈음이었다. 겨우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라 관찮을 거라 짐작했던 것이

불찰이었다.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경찰을 부르겠다는 그 강한 악센트에 마이크를 든 손님 옆에서 박자를 맞추던 그녀가 달려나왔다. 나 보다는 훨씬 유창한 영어로 노부부를 달래어 돌려보낸 그녀는 의기양양 턱을 치켜들었다. 그날 밤 나의 남성은 그녀의 치켜진 턱과는 반대로 수그러들었다.

집 안은 파편을 맞은 듯 어질러지고, 그녀는 어깨끈만 겨우 걸쳐지는 길이 짧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널브러졌다. 탄탄하고 가무스름한 다리를 아무렇게나 꼬았다 벌렀다를 반복하며 몸을 뒤치는 그녀를 바라보다 나는 창을 열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새삼 내 젊음을 스쳐갔던 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더러는 나팔꽃처럼 소박하게 예뻐다. 더러는 고혹적이었으나 때로 장미처럼 가시를 세우기도 했다. 매력의 주변엔 늘 날카로운 함정이 있었다. 그들 모두를 사랑했을까. 아니……. 그 중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하나쯤은 있었을까.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어쩌면 내 가슴에 그녀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나는 돌아서버렸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더니 왜 그리 넉넉지 못한 여자들만 만나게 되었던지. 나는 가난이 싫었다. 아니 더 이상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영배네 담장에서 잠을 자고 공부하며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맞붙어 악다구니를 쓰거나, 내가 잠든 사이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소리 내기를 반복했다.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봄, 아침 일찍 일을 나간 어머니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행여 소식이 올까하여 기다린 것이 몇 달, 누군가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 떠났을 것이라고 했다. 아니면 뺑소니차에 치여 어디엔가 시신이 유기되어 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어머니는 예쁘지도 않았다. 키도 작고 몸도 가늘고, 찡그린 얼굴엔 늘 찢기 없고 조그만 입술이 앙다물려 있었다. 잘 빨아 입지 못한 어머니의 몸뚱이에선 늘 생선 썩는 냄새가 났다.

그런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담 어머니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랐다. 남몰래 흘리던 내 눈물도 차츰 말라가던 그해 가을, 수염이 더 덩수룩해진 아버지는 영배네 담장에 오래 버티고 섰던 판잣집을 뜯어냈다. 그 담장에 붙어 적지 않은 세월동안 비를 맞고, 바람을 맞은 판자조각을 아버지는 어디론가 실어다 버리고 돌아왔다.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기로 결심한 아버지와 나는, 한밤중에 송아지를 몰래 팔아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는 침침한 방안에 누워 가래 끓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다 돌아눕고, 코밑에 수염이 거뭇한 사촌들이 나를 흘깃거렸다. 거긴 이미 나와 사촌들이 동격으로 뛰놀던 할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제 큰아버지의 집이었다.

나와 아버지는 거기서도 집이 없었다. 큰어머니의 눈칫밥을 먹으며 얼마간 그곳에 머물던 아버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머니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분명 어디엔가 성하게 살아 있을 거란 믿음을 가졌다. 때로 눈을 흘기는 큰어머니의 구박 속에도 차츰 키가 자라고 나도 남성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농가의 딸 인애는 얼굴이 아주 예뻐지만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 여드름이 돋은 얼굴에 교모를 푹 눌러쓰고 우울히 걷던 고교 3학년, 인애와 나는 어두운 여름밤 풀숲을 자주 걸었다. 한밤중인데도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던 풀숲은 달콤한 인애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흡혈모기가 웅웅거렸다. 어쩌면 나도 모기처럼 그녀의 피를 빨고 싶었다. 그 순결한 세계에 바늘처럼 날카로운 입을 대고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녀의 피를 삼켰다. 인애의 순백 가슴엔 내가 빨아 삼킨 피만큼

상처의 깊이가 새겨졌다. 나는 미숙했으나 남자의 본능을 지니고 있었다. 누군가 다른 여자를, 더 나에게 어울릴 여자를 기다려야할 것 같은 마음에 나는 그녀를 버리고 서울로 떠났다.

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된 대학 근처 입주가정교사로 있던 집에 느닷없이 아버지가 찾아왔다. 살아 있음이 반갑긴 했어도 나는 아버지가 싫었다. 아버지는 나를 찾아올 때마다 동행한 여자가 달랐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차림은 말쑥했다 초라했다 겉모습조차 바뀌기도 했다.

아버지의 여자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내게도 여러 여자가 오갔다. 내가 그녀들을 이리저리 재보다가 돌아서기도 했지만, 여자들은 가난뱅이 나를 사실 좋아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주재원으로 오게 된 미국, 주재기간이 끝나자 나는 망설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여기 주저앉았다. 이국땅은 내게 충분히 매력 있었다. 내 가난한 이력을 감추기도 쉬웠지만, 월부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더 이상 아버지의 바뀌는 여자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다. 아버지는 지금도 천 원 한 장이면 하루 종일 춤출 수 있는 노인 카바레에서 귀금속을 단 심심한 할머니들에게 점심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었다.

젊은 날 막노동을 했던 아버지에게 그런 끼가 숨겨져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지만, 내가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음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동반해줄 가장 유력한 후보를 고르기 위하여 4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던 미국의 삶 속에서도 여러 여자가 내 곁을 스쳐갔다.

여자들은 남자를 사귀면 결혼을 꿈꾸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언제나 탈출을 꿈꾸었다. 보다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말이다.

나와 비슷한 여자가 있었다. 비슷한 생각으로 비슷한 꿈을 꾸던 그

너……. 화려하고 아름답고 유창한 영어실력을 겸비한, 부동산 브로커들 사이에선 유명한 여자였다.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는 당장에 나와 힘을 합쳐 다섯 개의 방과 화장실이 있는 넓은 집을 샀다.

머리 좋은 그녀의 예상은 적중해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마구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넓은 집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고, 고급 가구들을 채워 넣기 위해 은행에 재융자 신청을 했다. 용자브로커의 손에 막대한 커미션을 뜯긴다는 걸 알았지만, 그건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녀와 내가 누군가의 집을 팔아주었을 때도 비슷한 커미션을 받곤 했으니까.

재융자를 받고나서 매달 지불해야 할 월부 집값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그러나 그까짓 거 집 몇 채를 팔면 그만이라며, 분주히 사람을 만나고 파티에 가고,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늘 파티를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고기를 굽느라 새카맣게 타버린 뒤뜰 화덕을 수세미로 문질러 닦으며 마치 그녀의 하인이 되기 위해 결혼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로 인해 이 근사한 집의 주인이 된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좀 힘들어도 넘어가 주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또한 그녀의 충실한 수컷이기도 했다. 그녀는 매일 밤 베개 밑에 콘돔백을 넣어놓고 나를 유혹했다. 그 나이에 아이를 갖기엔 너무 늦었다며, 그저 내게 사랑의 노동을 조르곤 했다.

그녀는 골프로 단련된 탄탄한 두 다리 사이에 이불을 뭉쳐 끼고, 옆으로 누워 낮게 코를 골았다. 한 달엔 두 번쯤은 온몸에 기름칠을 하고 받는다는 전신 마사지에 늘 보드랍고 매끄러운 그녀의 속살을 얼마동안은 탐닉했다. 그러나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나는 그녀를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일지 않았다.

한여름의 어두운 수풀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하얗고 가느다란 다리를 뒤척이던 인애. 왜 오랜 세월 전 그 애가 생각났던 걸까. 갑자기 인애가 보고 싶어졌다. 그녀의 순결한 세계에 이제는 닳고 닳은 내 입을 대고 그 여름날의 흠혈모기처럼 그녀의 피를 빨고 싶어졌다.

인애를 떠올리고부터 나도 모르게 아내의 수컷과 머슴 되기를 거부했다. 우리 부부의 불협화음에 때맞춰 미국 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 한껏 집값이 올랐을 때 융자금을 받아낸 우리에게 은행은 집의 현재 감정가를 빼고 난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통고장을 보내왔다.

그녀는 서둘러 집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고급자재로 치장한 큰집을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경기가 나빠 우리 두 사람에게 거의 수입이 없어지자 통장에 있던 얼마간의 돈에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집 월부금을 얼마나 연체했는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다.

기어이 은행에서 압류 통고장이 날아왔다. 그것을 들고 잔뜩 인상을 쓰던 그녀의 얼굴이 크리스털 샹들리에 빛 아래서 종이처럼 구겨졌다. 나는 그녀가 또 보톡스를 맞아야할 시점이 가깝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그녀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슬그머니 집을 나왔다.

한인 타운을 향해 운전하며 어디서부터가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 잡혀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어쩌면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아직 내 지갑엔 술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여러 개 들어 있었다. 만약 곧 파산선고를 한다면 써먹지도 못할 카드들이었다.

혼자 앉아 얼마를 마셨을까. 정신은 희미해졌지만 답답한 가슴은 해소되지 않은 그대로였다. 머릿속이 멍멍한데도 자꾸 울음이 터지려고 했다.

“손님! 이제 그만 가셔야죠. 저희도 문을 닫아야합니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화다닥 뿌리쳐버린 내 손등 위

를 스쳐가는 표피가 두꺼운 손이 느껴졌다. 순간이었지만 술기운에 차갑게 식은 내 피부 위로 그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도 모르는 안도감이 들었다. 계슴츠레 눈을 떴을 때 넓은 이마에 앞머리를 흘트린 한 남자가 코앞에 와 있었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자 계산하라고요. 아무 카드나 말이지. 아무 거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치 정전이 된 듯 머릿속이 캄캄해왔다

어둠은 편안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묻히듯이. 내가 그 어둠에 그냥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 있다고 기억되던 그 최초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리 애달피 올던 인애를 버리지 않을 텐데…….

눈등이 간지러웠다. 뜨겁고 부드러운 붓이 내 눈 위를 문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필만큼 가느다랗다고 생각했던 그 뜨거운 붓이 자꾸만 두꺼워지며 내 얼굴을 더듬었다. 그것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붓끝이 자꾸만 내 얼굴을 이리저리 간지럽혔다.

번쩍 눈을 떴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햇빛이 환한 방에 혼자 누워 있었다. 원래부터 커튼이란 것은 있어본 적이 없었던 듯, 커다란 창문으로 빛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창 밖 뜰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남자가 푸른 고무호스에서 쏟아지는 물을 잔디 위에 뿌리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나는 왜 오래 전 영배네 담장을 넘어와 우리 판잣집 옆에서 줄줄 물을 흘리던 그 푸른 고무호스를 떠올렸던 걸까.

내가 남모르는 사람의 집에 누워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자 얼른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뒷머리를 누가 잡아당기고 있는 듯 그만 도로 누

위버렸다. 슬그머니 둘러본 그 방은 좁고도 조촐한 방이었다. 누군가의 공부방인 듯 한쪽 벽에 책이 놓인 책상이 보였다. 침대에서 마주보는 붙박이 옷장엔 미닫이문이 반쯤 열린 채 옷가지들이 빠져나와 있었다.

물 호스를 들고 뒷마당에 섰던 남자가 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햇빛이 아른거리는 창에 대고 그가 씩 웃음을 머금었다. 그는 마치 물에 잠긴 채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좀 전 보다는 수월하게 몸이 일으켜졌다. 그 남자가 이마에 물기를 문힌 채 방으로 들어왔다. 얼추 내 나이쯤으로 보였지만, 어쩌면 나보다 좀 나이가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말없이 내게 지갑을 내밀었다. 검은 베르사체 지갑, 그건 분명 내 것이었다. 희미하게 어젯밤 술값을 계산하라며 지갑을 통째로 내밀었던 생각이 났다.

그렇담 이 남자는 어제 나를 일으켜 세우려던 그 사람인 것인가.

열린 침대를 나와 그 앞에 섰다. 그는 웬일인지 활짝 웃으며 내게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가.

“나야! 김영배! 대전시 대흥동 그 골목에 살던……. 너 우리 집 담장에…….”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자신이 실수를 했다 생각했던지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가느스름한 그의 입술 위로, 제 집 이층 베란다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날름거리던 영배의 분홍색 혀가 겹쳐졌다. 공부를 못해 이따금 선생님의 알밤 세례를 받던 그 까까머리 위로, 더러는 희끗거리는 머리카락이 덩수룩 자라나 있었다.

“야, 반갑다. 김영배!”

나는 그에게 성큼 다가가 손을 내밀다가 한순간 어지럼증에 비틀거렸다. 그가 열린 나를 부축했다.

“어제, 아니 오늘 새벽이었지. 너무 취했기에 집이 어딘가 싶어 자네가 내민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했지. 거기 생년월일과 이름을 보고 혹시나 싶었어. 가게에서 잠들게 둘 수도 없어 여기 우리 집까지 데려왔네. 잠이 든 모습을 이리저리 뜯어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자네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영배의 눈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붉어진 눈시울이 금방 젖어들고 있었다.

“그럼 어제 그 술집은 자네 가게인가?”

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부잣집 아들은 다르군. 이억만리에 와서도 번듯한 업소의 주인이니 말야.”

왜 그런지 입 안이 쓰디써져 입맛을 다시는데 그가 나보다도 더 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를 따라 거실로 나갔다. 사실 곧 압류당할 내 사는 집에 비하면 영배의 집은 조출했다. 그다지 값이 나가는 가구도 없었고, 벽에 걸린 사진 속 영배의 아내라 짐작되는 여자도 나의 그녀에 비한다면 촌스럽기만 했다. 그들 옆에 웃고 있는 열서너 살쯤으로 보이는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영배의 아들……. 내게는 없는 존재였다. 그 해맑기만 한 표정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내 생에 대해 분을 품어 왔어도 나는 그 옛날 담장 안 부잣집 아들 영배 앞에선 아직도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영배에게 나의 삶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내 베르사체 지갑과 폴로셔츠와 그의 가게 앞에 세워놓은 윤이 나는 검은 벤츠 승용차 만으로도 제 집 담장에 더부살이하던 가난한 친구의 이미지를 지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애의 발꿈치를 따라 그 집 2층을 조심스레 올라가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라 눈을 내리깔았다.

영배를 다시 만난 것은 필연이었다. 아무리 교포들끼리의 행동반경이 좁아 고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던 우연한 만남이 비일비재한 곳이라 해도…….

지난 몇 달 그와 이따금 만나오면서 그의 사업이 빈 깡통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처분이 되지 않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 술집도 적자투성이였다. 그가 그렇게 속을 털어놓아도 나는 내 사정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자존심을 좀 회복해 보자는 심산이었는데도 몰랐다.

나는 어젯밤도 그의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그만 두라고 손사래 치는 그에게 카드를 쥐어주며 굶어오라고 했다. 조금은 멋쩍게, 조금은 비굴한 표정으로 계산서를 들고 오던 영배는 어젯밤 나를 집 앞에 내려놓고 제 자동차로 돌아갔다.

나는 다 식어버린 녹차 잔을 들어 훌쩍 마셔버렸다. 어느새 창밖이 눈에 부셨다. 건너 집 현관 앞에 피어난 꽃들이 현란하게 빛을 발했다.

그녀는 며칠 째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차츰 영배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지는 동안 그녀도 다른 사람과 친해져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와는 달리 그녀의 대상은 이성일 것이라는 게 쉽게 짐작 갔을 뿐……. 집의 압류기일이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 옷장이나 화장대에 그녀의 물품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그녀가 아주 내 곁을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어젯밤 잠을 설친 머리가 무거워 아침별이 깊어질 무렵 침실로 들어갔다. 언제부턴가 정리되어 본 적이 없는 침대엔 이불이 알루미늄 호일처럼 구겨져 있었다. 그대로 침대에 몸을 부렸다. 이불에서 피어오른 먼지가 햇빛 속으로 날아올랐다. 무슨 냄새인가가 먼지에 섞여 풍겨왔다. 곰팡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뭔가가

씩어들어 가는 냄새인 것도 같았다. 나는 코를 별름거리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다. 왜 그런지 그 냄새의 근원을 꼭 찾아야 할 것 같았다. 냄새는 아래쪽에서 풍겨오고 있었다. 카펫 위를 이리저리 기어다니다, 흰색 레이스 베드 스커트가 드리워진 침대 밑에서 그 냄새가 풍겨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얼른 베드 스커트를 들켰다. 손을 집어넣자 공처럼 동그랗게 뭉쳐진 무엇이 말랑하게 손에 잡혀왔다. 내 손에 끌려 나온 그것은 어이없게도 그녀의 속옷뭉치였다. 잠자리에서 벗었던 속옷을 그렇게 뭉쳐 던져버린 것이 언제였던지. 딱히 그녀의 짓이라 말할 수도 없었다. 어쩌면 내가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나까.

거기서 낮익은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어렴풋이 어머니의 몸뻐에서 풍기던 그 고약하고도 익숙한 냄새를 떠올렸다. 갑자기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확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든 그녀를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 집이 없어져도 그녀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나는 그녀의 속옷 뭉치를 욕실 빨래 바구니에 던져놓고 다시 침대로 와 누웠다. 문득 그녀의 체취가 맴고 싶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여러가지 향수를 번갈아 뿌리던 그녀의 향기를…….

깊이 잠이 든 것 같았다.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 눈을 떴을 때 벌써 밝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다. 전화는 뜻밖에 세리프 경찰이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경찰은 김영배란 인물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의 핸드폰에서 마지막으로 발신된 번호가 바로 내 번호였다며…….

취중이었지만 지난밤 나를 집 앞에 내려주고 가던 그가 뜬금없이 잘 자라며 전화를 걸어온 것도 같았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영배의 집으로 갔다. 벌써 어둠이 거리를 메워오고, 그 검은 기운 속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명멸하며 내달렸다.

영배네 집 앞엔 이미 노란 금지선이 쳐지고, 다섯 대쯤의 경찰 사이

드카가 불빛을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친구 신분으로 특별히 집 안으로 불러 들어갔다. 현장조사가 한창인 그 집 거실엔 세 구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하나는 영배였고, 다른 둘은 사진 속에서만 보았을 뿐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었다. 이미 머리까지 시트가 덮여져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영배의 아내는 키가 크고 몸이 가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덮인 시트 사이로 손이 반쯤 내밀어진 영배의 아들은 제 아빠보다도 키가 크게 자라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내밀어진 손마디는 숨을 쉬던 때는 꽃대처럼 연했을 거란 짐작이 갔다.

며칠 내게도 심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곧 사업실패로 인한 가족 동반자살로 결론지어졌다. 영배의 오른손엔 화흔이 남았고, 아내와 아들의 가슴엔 총알이 두 알씩 박혀 있었다. 그리고 영배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은 피가 묻은 채 벽에 박혔다.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내린 권총은 마룻바닥을 미끄러져 시신의 반대편으로 떨어졌다.

영배 가족의 장례가 치러지던 저녁, 우리 집의 압류 날짜는 꼭 하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집에 들러 짐을 챙겨간 흔적도 없었다.

세 개의 관이 장의사 채플 앞에 놓이고, 평소 그 가족을 알고 지냈던 지인들이 모였다. 간단한 예배절차와 함께 관 앞에서 조객들이 한 사람씩 짧은 묵념을 했다. 얼굴 부분이 훼손된 영배의 시신을 공개할 수 없어 아내와 아들의 관도 닫힌 채였다. 나는 그들의 관 앞에서 눈을 감았다.

“너 우리 집 담장에 붙은 하꼬방에 사는 애구나.”

어디선가 어린 영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집에 살던 영배는, 집이 아닌 하꼬방에 살던 나를 세상에 두고 가버렸다. 어찌면

집이 없던 나는 아직도 집을 찾고 있는데, 집에 살던 영배는 벌써 또 다른 집을 찾아버린 것이다. 제 몸 하나 딱 누힐 수 있는 저 마지막 집을…….

장례식장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참 미국은 이상한 나라지. 내 나라에서 물 건너오면 가난뱅이가 부자 되고, 부자가 가난뱅이 되고…….”

“저 사람도 한국서는 잘 살았다는데……. 가난도 이력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법이지.”

슬쩍 뒤를 돌아보니 초로에 든 부부가 주고받은 말이었다.

주춤 멈춰선 나를 지나쳐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게는 가난의 이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두운 주차장을 터덜터덜 걸었다. 자동차에 올라타 어찌면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를 우리 집으로 달렸다. 나도 정말 나의 집을 만나기까지 이 질것한 세상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어둠을 달리는 차창 밖 이국의 도시에 적요한 불빛이 아프게 박혀 있었다.

광란의 아리아

이진이

도심, 일루와. 일루와, 도심!

작달막한 키에 작업복 잠바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려서 채워 입은 남자가 막 들어서고 있는 셔틀버스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느라 줄을 서 있던 열댓 남짓 한 사람들은 소리치는 남자를 따라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제법 큰 여행용 트렁크를 밀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형겅에 바퀴가 달린, 하지만 대체로 상태가 좋지 않아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이민가방이라고 불리는 가방을 밀고 가느라 애를 먹는 사람도 있었다. 굳이 그렇게 서둘러 셔틀버스를 쫓아가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남자가 소리를 치자 마치



1956년 4월 16일 출생. 중앙대학교 작곡과졸업. 2005년 미주한국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부문 「모퉁이에서 서성이며」 가작 당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셔틀버스를 놓치기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쁘게 몰려가고 있었다.

치이이익, 마땅히 설 자리를 못 찾은 버스는 약간 비스듬히 세워졌다.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인천국제 공항 직항, 셔틀버스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어디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할까, 공항 출구를 나와 갈피를 못 잡고 서 있던 범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 아마득하게 ‘광란의 장면’이 떠올랐다. 어느 해 겨울이었던가, 아내와 연애를 하던 시절, 아내가 좋아하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LUCIA DI LAMMERMOOR)를 보러 갔었고 3막이었을까, 루치아는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 뒤 미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정확하게 Flute 소리와 3도 화음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간격으로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불리어지던 그 적막한 ‘광란의 아리아’를 듣고 있으려니 온몸이 오싹해졌고 광란이 가슴으로 파고들었던 기억이 섬뜩하게 다가왔다.

10년 만에 뵈아 보는 한국 땅이었다. 아니, 20년이지 않은가, 아내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것은 정확하게 20년 전이었다. 아내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불려오던 배에 범수의 손을 가져갔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햄버거를 하나 사서 반으로 나눠 먹어도 아내는 마냥 행복해 했다. 하지만, 말이 유학이었지 갖고 갔던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드러났고 범수는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아내는 기저귀 보파리와 함께 아이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마켓으로 캐셔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였다.

우선 김포공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버스는 보통과 리무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범수는 보통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서 리무진 표를 사서 김포공항이라고 쓰여 있는 표말을 찾아가서 섰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누군가 범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서둘러 누군가에게 물어 볼 마음도 없었다.

담배를 한 모금 주욱 빨아들인 다음 후우욱 내뿔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담배 재를 버릴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휴지통 앞에 서 있던 사내가 길지 않게 버려진 꺾초를 주워 들다가 범수와 눈이 마주쳤다. 사내는 태연하게 담배꺾초를 들어 보였다. 범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새 담배를 꺼내 들고 사내에게 다가갔다. 아냐,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딱 한 모금 생각이 나서, 사내는 담배를 받아 들었다. 사내는 휴지통에서 주워들었던 담배꺾초를 다시 휴지통에 버리고 새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다. 범수는 라이터를 켰다. 사내는 담배를 주욱 빨아들이고는 범수를 쳐다봤다. 어디 가는 버스를 기다려? 범수는 표를 내보였다. 이진 리무진 표 아냐, 여기는 보통 버스정류장이야. 범수는 사내가 가리켜 보인 리무진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김포공항행 리무진은 바로 전에 출발을 하고 난 후였다. 무슨 상관인가, 다음 버스가 또 올 텐데. 범수는 어차피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 어디로 가야할지 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가 떠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형적인 한국의 겨울 저녁 날씨가 시작되며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범수는 어서 인천공항을 벗어나서 김포공항이라도 가야할 것 같아 초조해졌다. 사내가

다가왔다. 김포공항에서 어디로 가려는 거야, 비행기를 놓친 건 아냐? 범수는 사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사내를 쳐다봤다. 김포공항에 가는 건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가는 거 아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웬만한 지방 도시로 가는 버스란 버스는 죄 있는 걸 김포공항까지 갈 까닭이 없잖아. 사내는 범수가 공연히 김포공항에 가는 걸 눈치라도 챌 듯이 쓰웃 웃었다.

20년 전, 이맘때였다. 짐이라야 옷 몇 가지와 당장 필요한 그릇들 뭐 그런 것들이 전부였던 짐을 부치고 나서 아내는 식구들과 김포공항 2층 출국 게이트 난간에 기대어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10년 내내 더 싼 아파트를 찾아 일 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옮겨 다녀도 늘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다. 아내는 웃고 있었다. 아내가 행복해 하면 더 행복했다.

범수는 사내와 김포공항행 셔틀버스에 올라탔다. 승객이라야 고작 네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인이었다. 제주도로 영어교사를 하러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중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범수가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다. 갑자기 답답함이 느껴지자 범수는 창 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창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아무리 어둡해져서 분간을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차창 밖으로 시선을 옮긴 범수는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저 휘황찬란한 불빛들, 길게 뻗은 이 다리는 무엇인가, 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까, 범수는 쉽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사내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다. 삼십여 분이 지나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타자마자 통화를 하기 시작하던 아주머니가 제2청사에 내려 달라고 하자 버스가 멈춰 섰다. 아주머니는 내리면서도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미국인이 내리려고 하자 운전사가 소리쳤다. 어디 가는 거래? 제주도 간다구 하지 않았어요? 제주도는 1청사에서 내려야 해, 1청사 2층에서 타는 거라구 말 좀 해줘요. 범수는 미국인을 버스에 혼자 남겨 놓고 2청사에서 사내와 내렸다.

김포공항은 인천공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20년 전의 느낌은 어디고 찾아볼 수가 없었다. 범수는 좀 색다른 분위기의 가게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커다란 홀을 메우고 있는 모습이 여간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마치 평화시장 안의 가게들이 조금씩 넓게 자리를 잡고 이동해 온 것 같지 않은가, 손님은 전혀 없었다. 도무지 모든 것이 낯익이 가지 않았다. 이 많은 물건들, 들여다보니 여간 고급 물건들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난 지금 분명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범수는 버스에서 내려서부터 동행을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줄곧 따라오던 사내를 쳐다봤다.

처음 미국 마켓에 갔을 때 아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이런 치즈를 정말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구멍이 숭숭 뚫린 사이로 시퍼런 곰팡이가 핀 치즈를 보며 아내는 소리를 질렀다. 범수는 빨리 돈을 벌어 아내에게 곰팡이가 핀 치즈건 아니건 실컷 사주고 싶었다. 리퀴스토어에 일 자리를 얻었다. 위험이 따르기는 했지만 빨리 아파트 렌트비를 벌어야만 했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은 리퀴스토어를 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배워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자장면을 시켰다. 사내는 허겁지겁 자장면을 단숨에 먹어 치웠다. 범수는 두 젓가락을 먹다가 그만두었다. 범수는 언제까지 사내와 동행을 해야 하는 건가, 사내는 그릇에 남아 있는 소스를 열심히 긁어 모으고 있었다. 아,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오늘 어디 잘 곳을 정해 놓기는 했어? 사내는 뼈석거리는 자장면 집 냅킨으로 입 주위의 자장소스를 닦아내며 말했다.

아내는 자장면도 대부분 집으로 포장해 해 와서 먹었다. 여기는 왜 팁을 어디고 줘야하는 거야, 아까워 죽겠어. 둘째 아이를 갖은 아내는 자장면을 유난히 먹고 싶어 했다. 웬만한 데 팁 줄 돈이면 한 끼 햄버거 값이잖아, 에유, 아까워, 아까워. 운이 좋아 보였다. 일하던 리퀴스토어 주인이 좋은 조건으로 리퀴스토어를 넘기겠다고 했고 범수는 용자를 받아 리퀴스토어를 인수했다. 아내는 배가 불러오자 허리를 제쳐가면서 자장면을 포장해서 리퀴스토어로 왔다.

숙식을 한꺼번에 해결 할 방법이 있기는 있어. 공항근처에 모텔이라고 쓴 방을 잡고 이불을 깔고는 나란히 누워서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내뿜으며 사내가 말했다. 어딘가 잘 곳이 필요하기는 했다. 먹여주기까지 한다고 하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없어 보였다. 마냥 이런 여관방에 묶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차라리 일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내가 한군데 오래 있지를 못하는 성질이 있거든. 왜, 그럼 그 일을 하지 떠돌고 있는 걸까, 사내는 범수가 묻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을왕리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어디를 갈까하고 들렀던 거야, 난 머리 쓰는 건 아주 딱 질색이거든, 공항에 가면 생각을 안 해도 지방도시 이름 만야, 웬만한 동네 이름까지 죄에 적혀 있어서 그 중 마음에 드는 이름을 하나 골라잡아서 버스를

타면 되잖아. 사내는 엄지손가락까지 꺾어 보이며 떠들었다.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왔고 범수는 우선 잠을 좀 자줘야 할 것 같았다.

사내를 따라 간 곳은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의 허름한 중국 집이었다. 비슷비슷한 분위기의 남자가 이미 두 명이나 있었고 삼십대로 보이는 여자는 범수를 아래위로 훑어보며 서빙을 하느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아주머니와 머리에 자장소스가 묻은 주방 모자를 쓴 남자가 나란히 얼굴을 내밀며 내다보았다. 마흔은 넘어 보이는 주인여자는 카운터를 보고 있었다. 중국집이라고 하기보다는 분식집이라고 하는 편이 옳았다. 범수는 혼란스러웠다. 이젠 범수가 떠나던 20년 전의 중국 집 수준이라고 보기에 도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그럼, 텔레비전에서 날마다 떠들어대던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어떻게 된 일인가, 더욱 범수를 놀래게 만든 것은 위생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수라장 같은 주방에서 때가 되면 그 많은 자장면과 찜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배달직원은 넷이나 되었다. 주방에서는 한 명의 남자와 서빙을 하던 여자가 들어가자 나이든 아주머니와 수다로 양념이 더해지며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때 대학시절 모터사이클에 심취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범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원한다면 세간을 팔아서라도 해 주어야 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한석봉 어머니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떡장수가 아니라 방앗간을 했기 때문이었을까. 엘에이 노인아파트에서 잘 살고 계시던 어머니는 범수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리다가 쓰러지고 노인 병원으로 옮긴 지 삼 일 만에 눈을 감고 말았다. 범수는 장례식

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씨발, 범수는 고등학교시절 뒷동산에서 담배를 배우며 한두 번 내뱉어 본적이 있었을까 했던 씨발이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자 오히려 가슴이 후련해졌다. 모서리가 깨져나간 진노란 사각 플라스틱 통이 오토바이 뒤에 두 개가 묶여있었다. 그 안에 철가방을 각각 싣고도 한 손으로 철가방을 들어야만 했다. 헬멧을 안 써도 경찰이 잡지 않느냐는 질문에 약간 어려 보이는 남자가 헬멧이란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범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게 어느 나라 법인데요?

문제는 올망졸망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주택의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미국주소가 얼마나 간단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돌아오니 집을 찾느라 늦어져서 붙어터진 면발에 화가 난 사람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김씨, 도대체 눈은 뭐 하러 달구 다니는 거야, 아침에 파마를 했는지 산처럼 부풀어 오른 머리를 미스코리아 출전이라도 나가려는 듯 풀어헤친 주인여자가 말했다. 범수는 머리뿐이 아니라 주인여자의 진한 립스틱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주인여자는 처음부터 범수가 이 일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범수를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긋지긋하게 통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뭔가 한마디라도 범수와 대화가 통할 것 같아서였다. 당장은 대화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못 먹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다시 배달을 내보내야 했고 주방에서는 음식을 두 번씩 만들어 대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다. 밤 열 시가 돼서야 뼈거덕거리는 식당 테이블에 모두 여덟 명의 사람들이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하여 둘러앉았다. 구체적으로 저녁을 뭘 먹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중국집이니까 당연히 자장면이나 짬뽕, 튀기다 남은 탕수육이라도 곁들여 먹지 않을까, 저

턱으로 주방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자장면도 짬뽕도 물론 탕수육은 더욱 아니었다. 커다란 양푼에 마치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기 전 빵아 놓은 쌀가루처럼 보이는 하얀 맨밥이 퍼 올리어져서 나왔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둘째 녀석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으로 아내가 만들어놓은 탕수육을 막 먹으려고 할 때였다. 아내가 아끼는 레노스 타원형 접시에 보기 좋게 야채로 장식을 한 탕수육이었다. 누군가 급히 리퀴스토어를 하나 찾는데 확실하기만 하다면 시세보다 두 배를 쳐주겠다는 복덕방 전화였다. 범수와 아내는 수저를 놓았다. 그래, 여기서 주저앉으면 리퀴스토어나 하다가 미국 생활을 마감하지 않겠는가, 스시 집을 해보면 어떨까, 스시 맨을 두면 내가 카운터를 보면 되니까, 당신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아내가 눈을 반짝였다.

그 다음에 나온 음식은 고춧가루가 풍년인지 시뻘깁게 버무린 걸저리와 역시 고춧가루가 범벅이 된 고등어조림이었다. 우리는 부패스탈를 즐기는데 김씨, 좋아하나? 전라도 사투리를 간간이 묘하게 사용하는 박씨가 소주가 두 잔 들어가자 범수를 계슴츠레 풀린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범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소주잔을 들고 입으로 가져 가다가 멈추고 바라보았다. 부패 몰라, 김씨? 범수는 소주를 죽 마시고 잔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부패, 무슨 부패를 말하는 걸까, 사내가 범수의 잔에 소주를 부어주며 설명해 주었다. 이게 뷔페야, 뷔페가 뭐 별 거야, 각자 덜어먹으면 뷔펜 거지. 범수는 어느새 먹다가 흘린 김치자국들, 발라놓은 고등어 뼈, 소주잔들, 짹 안 맞는 젓가락들, 지저분하게 어질러진 테이블을 훑어보았다.

아내는 없는 살림에도 늘 하얀 식탁 보를 깨끗이 빨아서 깔기를 좋아했다. 토마토 하나라도 예쁘게 썰어서 가지런히 놓고 그 옆에 푸른 이파리 하나를 장식하면서 행복해 했다. 스시 집은 예상외로 잘되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범수는 공부 욕심이 생겼다. 아내도 반가워했다. 다시 책을 붙잡으려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보내야만 했다. 어느 날, 유난히 아이들과 아내 생각이 간절하여 책을 가방에 넣고는 집으로 향했다. 당연히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할 아내와 아이들이 없었다.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이웃집 할머니 댁에 들렀다. 애기 엄마가 오늘 좀 늦는다고 전화가 왔던데? 뒷정리 할 일이 많았나 보다,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식당 일이라는 게 여간 잔일이 많은 게 아니지 않은가. 해도 해도 그야말로 끝이 없는 일이었다. 범수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식당으로 향했다. 당연히 열려 있으리라 생각한 식당에 불이 꺼져 있었다. CLOSED, 식당 문에 희미한 불빛을 받으며 약간 비스듬하게 걸려져 있는 사인이 보였다. 어디를 간 것일까, 급히 마켓에 사러 갈 물건이 생겼나, 하는 순간, 안에서 두 남녀가 영키는 실루엣이 어슴푸레 스쳤다. 범수는 다가가 틈이 벌어진 블라인드 사이 앞에 멈춰 섰다. 회전초밥이 돌아가던 바아는 멈춰진 채 벌거벗은 아내가 초밥 대신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아내의 커다란 젖무덤을 스시 맨은 마치 스시 칼로 생선을 다루듯 능숙하게 어루만지더니 지느러미를 더듬듯 아내의 몸을 더듬어 내려갔다. 아내는 아주 천천히 한 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마땅히 잘 곳이 없는 남자들은 식당 방에서 이불을 깔고 잘 수 있었다. 범수도 그들과 나란히 누웠다. 사내는 눅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다. 범수는 온몸이 물 젖은 솜방망이처럼 무거워져 왔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방을 나왔다. 식당 홀에 나와서 물을 마시려는데 주인

여자가 들어왔다. 조금 더 진하게 바른 주인여자 입술이 눈에 거슬렀다. 핸드백을 까먹고 안 가져 갔어, 집 키가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카운터 책상 서랍을 열어 핸드백을 꺼내 들고 나가다가 주인여자는 범수를 돌아보았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범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불편해서 잠이 안 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일까, 갑작스러운 환경, 차라리 충격적인 환경, 며칠 전 엘에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도 전혀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을 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이 건 예측 불허였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 집에 빈방이 하나 있는데 며칠 동안만 가서 잘래만 자구. 방을 하나 구하기는 해알 테니 구할 동안만이라도,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는 못 잘 거 아냐, 김씨는. 주인 여자는 집이 아니라 방이었고 방이란 잠만 자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다지 큰 집은 아니었지만 아늑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만인가, 집이라는 공간에 발을 디뎌 보는 것은 10년 만이었다. 주인 여자는 태연하게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다. 범수는 주인여자가 내어 준 방으로 들어갔다. 서 있기에다 마땅하지 않아 범수는 침대에 누웠다. 주인여자가 샤워하는 물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아내는 경찰을 불렀다. 범수는 눈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고 겁에 질린 아내는 벌벌 떨었다. 도착한 경찰은 깨어진 유리창과 난장판으로 변해 버린 실내를 둘러보고 아내에게 재확인 을 했다. 아내는 갈등을 하다가 범수를 외면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범수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다. 재판이 열렸고 아내는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나 하는 판사의 질문에 끝내 예스를 했다. 어떻게 되는 건가, 아이들, 우리 집, 아니 나의 아내는.

범수는 오늘 하루가 감옥에서 지냈던 십 년보다도 더 길었다는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방문이 닫히지 않았나, 샤워를 마친 주인여자는 범수의 침대로 파고들었다. 여자는 다짜고짜 범수의 팬티 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범수는 긴장했다. 어머, 자기가 무슨 총각이야, 여자는 범수의 태도가 약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여자는 범수가 여자를 잊었던 십 년보다도 더 남자에게 굶주렸던 것이었을까, 범수는 여자를 안았다. 창 밖으로 흰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다. 떠나려면 떠나요, 여자는 알몸으로 일어나 중얼거리듯 말하며 방을 나갔다.

조금 익숙해졌다. 한 손으로 철가방과 주소를 적은 종이를 들고 오토바이를 몰아 언덕을 오르는 일과 무엇보다도 주소를 보고 집을 찾는 일이 익숙해졌다. 사내는 일주일도 못되어 그만두었다. 서해안으로 가면 배를 탈 수 있어. 여긴, 영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범수는 배달을 하고 돌아오면서 샀던 담배를 건네주었다. 사내는 홀깃 주인여자를 보다가 범수를 쳐다보았다. 같이 가려나 물어 보려고 했는데. 사내는 쓰으 웃어 보이고는 미닫이문을 열고 나갔다.

아내가 면회를 왔었다. 범수는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 그 뒤 한 번 더 아내는 범수를 찾아왔다가 다시 면회를 거절 당하자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범수는 그대로 찢어서 변기통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 범수의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을 찾아왔다. 시민권 시험에 통과했어, 엄마가. 어떻게든 건강만 해치지 말고 지내. 에미가 애들을 데리고 왔었다. 내가 진작 미국에 니들을 따라왔었어야 했는데, 방앗간 임자가 왜 그렇게 안 나타나, 그냥 내버려두고 에미가 애들을 봐 달라

고 할 때 얼른 왔었어야 했는데. 어느 식당에서 갖고 온 냅킨인지,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냅킨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계속해서 여자네 집에서 잠을 자기가 불편해지고 있을 즈음이었다. 여자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범수를 불러냈다. 차라리 커튼을 덧달지 않았으면 나아 보였을 분홍색 커튼이 블라인드 위에 덧달린 이층 커피 집이었다. 뭐 마실래요? 여자는 언제부턴가,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메뉴판을 보니 헤이즐릿, 까페라떼, 에스프레소, 카라멜 마끼야 또 등등 커피 종류란 있는 대로 적혀져 있었다. 난 헤이즐릿. 껌을 짹 짹 씹던 종업원은 범수를 보더니 씹던 껌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범수는 그냥 커피를 시켰다. 브랜드요? 무슨 커피를 말하는 걸까, 범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종업원 여자는 껌을 다시 짹짹 씹으며 메뉴판을 집어 들고 카운터로 걸어갔다. 더 짧기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짧은 치마 아래로 올이 나간 스타킹이 삐쩍 마른 다리 위에 신겨져 있었다.

아내는 몇 년 동안 치마를 입지 않았다. 자칫하다가 올이 나가 버린 스타킹을 들여다보며 너무 속상해 하면서 치마를 모두 박스에 접어 넣었다. 우리 부자 되면 다시 입어야지, 근데, 그동안 내가 너무 살이 찌서 작아지면 어떡하지, 아내는 샤넬 스타일이 잘 어울렸다. 단 한 벌도 가져 볼 수 없는 가격표를 아내는 슬쩍 뒤집어 보았다. 샤넬 매장에 늘어져 있는 스커트도 스타킹도 몽땅 사 주겠다고 범수는 생각했었다.

원래 말을 그렇게 안 해, 아님 말하기 싫은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헤이즐릿커피를 마시면서 이어 말했다. 좀 넓은 아파트를 하나

살까 하는데, 범수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쳐다보았다. 뭐 범수 씨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신경은 쓰지 말아요. 범수는 브랜드라고 하던 맹물에 가까운 커피를 마셨다. 여자는 범수가 배달을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냐, 아니면 다른 가게를 하나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 왔다. 범수는 여자가 한없이 측은해 보였다. 나한테 잘하지 마, 난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여자는 멍하니 범수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여자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이 비실거리며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범수는 잠바 깃을 올렸다. 이거 맞을 거야,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여기 겨울은 그런 얇은 잠바로는 어림도 없어요. 두터운 겨울 잠바를 사 들고 와서 여자는 가격표를 뜯어내며 말했다. 범수는 마치 여자가 옆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돌아가기 전에 들리는 봐야겠다. 숨이 확 조여 왔다. 어디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 어디에 돌아갈 곳이 있는 건가, 갑자기 어머니의 유품이 생각났다. 돌아가시고 난 후, 노인 아파트를 정리해야 했다. 마땅히 둘 곳도 없었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다 어설픈 물건들이 있었다. 어머니와 절친하게 지내시던 위층 할머니가 몇 가지는 맡아 주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네들이 하나씩 돌씩 나눠 갖기도 하고 남은 물건들은 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에미가 사왔어. 어느 날, 어머니가 조금 무거운 C. D 플레이어를 들고 면회를 왔다. 근데,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건지 뭐가 잘못 된 건 아닐 텐데, 에미가 물건을 절대 잘못 살리는 없잖아. C. D 플레이어에 맞추어져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었다. 오오오, 이제 소리가 나네, 아무 것도 만지지 말아야지. 그 C. D 플레이어는 약간 망설이다가 유품 박스에 집어 넣고 테이프를 붙였다.

배를 타러 가려면 서해안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데, 왜 배를 타야만 하는 건가, 그럼, 어디로 갈까, 가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지자 우선 배가 고파 오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식당에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 여기는 어딘가, 궁금해졌다. 아, 어디라고 하면 알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신림동으로 가자.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가 국밥을 던지듯이 테이블에 놓고 가자 국물이 출렁거리다가 테이블 위로 넘쳐 흘렀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수첩에서 오래된 주소를 하나 찢어 왔다. 신림 8동 330-16번지, 이제 어느 정도 주소를 보고 집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손님, 신림 8동은 아파튼데요? 몇 동 몇 호 주소는 갖고 계세요? 택시 운전수가 백미러로 범수를 넘겨 보며 말했다. 몇 해 전에 아파트로 재개발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온통 거리는 아파트로 빌딩 숲을 이루고 있었고 차들은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연신 땡땡대고 있었다. 남부순환도로를 한참을 지난 다음 좀 한가해지자 범수는 택시에서 내렸다. 국악예술원,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차례로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주위는 공사를 하느라 사방에 바리케이드가 둘러쳐져 있었고 신호등이 켜지자 대기 중이던 차들이 일제히 앞을 다투어 출발하였다. 한 두 개 정도의 악기점이 있었던 거리에는 악기점 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 중에 어색하게 들어서 있는 레코드가게가 눈에 띄었다. 범수는 C. D를 한 장 샀다.

잘 닫히지 않아 벌어진 창문 틈새로 햇살이 새어 들어와 눈이 부시었다. 범수는 순간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엘에이에 있는

걸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걸까, 한국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은 꿈이었을까, 범수가 10년 동안 복역을 하던 엘에이 다운타운 한복판 콘크리트 건물의 철창 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다. 툭툭툭툭 종업원이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어젯밤에 늦도록 걸어서 신림동으로 돌아와 모텔이라고 쓴 빌딩으로 들어왔던 기억을 일깨웠다. 손님, 더 계실 거면 계산해 주시고 계셔야 하는데 요, 범수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뭐 필요하신 거는 없으세요, 스무 살은 안 돼 보이는 종업원 남자아이는 방안을 기웃거렸다.

잘 살고 있대, 애들도 다 잘 있구. 면회를 온 어머니가 열심히 설명했다. 범수는 손자들 얘기를 할 때 약간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다. 에미 말이 아빠는 멀리 가서 못 온다고 했더니까, 가게 처분한 돈이 꽤 되기는 했나보다만 법적으로다 에미 앞으로 된 거라잖아. 어머니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망설이는 듯하다가 덧붙였다. 어떻게 혼자 살아, 에비가 나온다고 에미하구 다시 합칠 것두 아니니까, 내가 보냈다. 저만 살겠단구 지새끼들 버리는 에미도 있는 세상 아냐. 어머니는 며느리 편이었다, 아들 편이었다 종잡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이었다. 다 크면 찾아오겠지, 에미가 보내 줄 테지, 안 보내 주면 그 때는 나도 할 말이 있어. 할미가 엄연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통사정을 해서 보내 준 내 새끼들 아냐. 어머니의 말은 상관도 없이 어처구니없는 미국에서는 자식권리고 뭐고 주장할 처지도 못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범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다.

따님과 두 손자들은, 동사무소 직원은 범수를 다시 올려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분가하셨습니다. 아버님 되시는 분만 분양 받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시고 가시면 연락을

해서 만날 의향이 있나 확인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범수는 무슨 말인지 후련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아내를, 아이들을, 찾을 실마리가 있다는 것만은 느껴져 왔다.

다시 입안에 침이 마르는 것 같았다. 문득, 여자가 생각났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챙겼다. 화장품가게에서 열린 와인칼라 립스틱을 샀다. 아내는 매우 도드라진 입술을 가졌다. 그래도 아내는 꼭 와인칼라 립스틱을 샀다. 하지만, 아내가 립스틱을 바른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있었지만 아내가 립스틱을 바르지 않는 까닭을 범수는 잘 알고 있었다. 열린 와인칼라는 여자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대문에는 버튼 전화기처럼 번호가 붙어 있는 열쇠가 필요 없는 자물쇠로 바뀌어져 달려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동사무소에 찾아갔을 때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전하는 쪽지를 직원으로부터 건네 받았다. 직원은 마치 발급 신청을 한 주민등록등본이라도 내주듯 쪽지를 카운터에 올려 놓았다.

어느 곳에서 아내가 나타나서 걸어올까, 범수는 가운데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검은 승용차가 범수의 시야를 가리며 멈춰 섰다. 뒷좌석에서 마르지도 그렇다고 살이 썩 보이지도 않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주위에 가끔은 볼 수 있는 청년 같은 분위기의 사람이 내리자마자 보도 블록을 가로질러 바로 커피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범수는 입구에 들어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검은 양복을 차려 입고 있었다.

제법 굵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속력을 늦추었다. 아내는 며칠 전, 범수는 가슴이 찢려 나가는 듯한 고통이 엄습해 왔다. 떠났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은 요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아내의 남편은 잠시 눈물이 고이려는 것을 참아 내느라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다. 한 숨도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해 내기란 아내로서는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밤새 로마교황에게 하소연을 했죠. 아침이 되어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와도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아내는 밥 먹는 일조차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하는 아내를 절대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전화기 줄을 짧게 해 뒀어야 할 걸, 아내의 남편은 온몸을 후회로 떨며 말했다. 아이들은 제가 친아버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내의 남편은 명함을 한 장 건네주고 가장 빠른 걸음걸이로 걸어 나갔다.

마지막 날이었다. 사내는 며칠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오늘도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다. 30여 년을 태어나서 살았던 내 나라다. 고작 머무를 수 있는 날이 90일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불법체류자, 전과자에 불법체류자가 더해진다고 해서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지 않은가, 범수는 앉아 있던 나무 의자에서 일어났다. 지방도시 이름 만야, 웬만한 동네 이름까지 죄에 적혀 있어서 그 중 마음에 드는 이름을 하나 골라서 버스를 타면 되거든. 사내가 쉼 목소리로 떠들던 말이 떠올랐다. 범수는 주머니에 C, D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주욱 둘러보았다. 대구, 평택, 부산, 대전, 광주, 오산, 그 외에 수지, 일산, 평내 낯설은 이름들도 제법 많았다. 사람들이 가장 길게 늘어선 줄은 삼성동

도심 공항 터미널이라고 쓰여진 낱말 앞이었다. 삼성동 도심 공항터미널, 낯설고 긴 낱말을 읽고 있는데 범수는 누군가 옆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사내가 범수의 팔을 툭 쳐 보였다. 이번에는 도심으로 가볼 거야, 사내는 긴 줄 뒤에 합류하면서 같이 가보자고라도 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범수를 쳐다보았다. 범수가 미처 반갑다고 말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바빠졌다. 작달막한 그 남자는 여전히 버스가 들어서자 쫓아가며 소리쳤다. 도심, 일루와, 일루와, 도심. 사내는 버스를 올라타며 범수를 뒤돌아보았다. 짐간에 짐이 다 실려지고 남자가 버스를 탕탕 두드리자 셔틀버스는 출발했다. 범수는 주머니 속의 C. D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광란의 아리아'가 머릿속에서 멀리멀리 아련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다

전상미

“어쩌려고 그렇게 먹어대는 거야! 먹어댄다고 걸을 수 있대? 먹어댄다고 말을 할 수 있대? 먹어댄다고 여자를 안을 수 있대? 똥만 싸대려고 쫓쫓. 자네도 정신 좀 차려! 식사 양을 줄이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고 똥 치느라 고생을 사서하고 있으니 아직도 영감이 그렇게 좋냐! 냄새가 지독하니까 방문 좀 열어 놓고 담요도 새 것으로 갈아!”

어머니가 아버지와 작은어머니에게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잔소리다. LA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춥지도 않은 겨울이 지나도 어머니의 잔소리는 지치지도 않는다. 녹음기가 어머니의



1976년 도미. 1988년 미주한국일보 신춘문에 「병두네 식구들」로 등단.
2000년 장편소설 『백번째 장미나무』 펴냄.
2004년 단편소설 모음집 『두 여자 이야기』 펴냄.
현재 미주문인협회 이사.

머릿속에 장치돼 있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어머니의 미움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오른쪽으로 돌아간 입으로 작은어머니가 퍼주는 야채 죽을 온갖 힘을 다하면서 받아먹는 아버지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건강했을 때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소리쳤었다.

아버지는 오른팔은 못쓰고 왼팔은 겨우 움직인다. 두 다리는 허수아비처럼 달려 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스스로 빠져나가 잠옷이 비쩍 마른 아버지의 몸 위에서 훌렁훌렁 돌아다닌다. 마른 몸에 비해 아버지 얼굴은 살이 좀 있는 편이다. 돌아간 입은 처참하게 보이지만 눈은 살아 있다. 살아 있는 눈으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기도 한다. 때로는 눈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분노와 비애를 읽을 수 있다. 특별히 나를 바라보는 눈 속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뜻이 있다. 아버지의 그런 시선을 받으면 내 몸에 소름이 끼친다. 그때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아버지를 본다면 놀라 기절할 것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키가 작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키가 컸다. 키가 큰 것뿐만 아니라 우람한 덩치에 다리가 길어 몸매가 멋있었다. 목소리가 좋아 노래도 잘했다.

3대 독자로 태어난 아버지는 집안의 자랑이며 오씨 가문의 아주 많은 재물과 대를 이어 갈 기둥이었다. 얼굴은 얼마나 잘 생겼는지 요즈음 태어났다면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아버지의 재물과 아버지의 인물에 현혹되어 엉덩이를 흔들며 달라붙었었다. 그런 아버지였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방에서 나오다 나를 보자 이번에는 나에 대해 녹음기가 자동으로 돌아갔다.

“너는 옷이 그게 뭐니? 어디 쇼에 나가니? 네가 무슨 뽕뽕한 20대라고 젓통을 다 보이게 옷을 입고 있니? 가서 당장 옷 갈아입어! 어느 남자가 너처럼 가슴팍 내놓고 다니는 년을 마누라 삼겠니? 시집도 못가면서 남자만 갈아치우고, 쫓쫓, 미친년!”

내 이름은 오점순인데 어머니는 한번도 점순이라고 불러주지 않았다. 남보다 예쁜 것도, 몸매가 좋은 것도, 키가 큰 것도, 음식을 잘 하는 것도, 노래를 잘 불러도 언제나 나는 미친년이었다. 자라면서 예뻐지는 나를 보면서 미친년 소리는 더 잦아졌다.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 내가 20대였을 때 어머니와 공중목욕탕에 가면 어머니는 풍만한 내 가슴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며 “미친년! 미친년!” 하면서 자신의 납작한 가슴을 분홍색 때밀이 수건으로 북북 밀었다.

아버지의 여자들은 모두가 젓통이 컸다. 어머니는 그런 이유로 가슴이 실한 여자를 미워한다. 양녀인 내 큰 가슴도 미움의 대상이다. 그녀는 가슴이 커야 남자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 방에서 작은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났다. 나는 얼른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다. 그런 일이 잦지만 오늘은 대형사고였다.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죽 그릇을 쳐 낸다든지, 입으로 들어간 음식들을 작은어머니 얼굴에 확 뱉어 버린다든지 등은 아버지의 한 부분이 살아 있는 두뇌의 반란이다. 살아 있는 뇌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과 명령은 아버지의 입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살맛이 나고 인생이 화려해져 갔다. 만약 아버지가 의식조차 없다면 섬뜩한 광기를 빙네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의학적으로 잘 이해는 못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혼자 먹지도 못 하고, 걷지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대소

변도 못 가리고, 여자도 못 안고,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도 못 부른다. 아버지의 애창곡인 “신라의 달밤”이 지금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아버지는 오직 어머니의 복수의 화살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정말 아버지가 체념 속에 사는 것인지 알고 싶어진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얼굴과 가슴 성형수술을 받고 당당하게 아버지 방에 들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웃었을 때,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에 분노의 불길이 확확 차오르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인처럼 얼굴이 희열로 변덕거렸었다. 어머니는 오르가즘이 사라진 후 천천히 앞가슴을 열었다. 납작한 가슴은 사라지고 봉긋하고 탐스런 젖가슴이 교만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힘 빠진 왼팔을 움직이면서 입에서 거품을 뿜어냈었다. 어머니는 그 가슴으로 아버지에게 한방 날린 셈이다.

아버지 방에서 내가 본 것은 최악의 상태였다. 아버지가 작은어머니의 젖을 물어뜯었다. 그렇게 탐스럽던 작은어머니 가슴도 어느덧 세월의 흔적으로 늘어졌다. 늘어진 작은어머니의 젖꼭지에서 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이 들고 젖가슴이 늘어졌어도 피는 빨갛다.

가끔 내가 아버지 방으로 갔을 때 작은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작은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름답게 보았다. 비록 아버지의 육체는 이미 사람도 아니고 남자가 아니더라도, 아마 살아 있는 머릿속으로는 작은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섹스에 대한 한 가닥 느낌이 오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의 눈빛을 읽을 수 있다. 지금 아버지는 지나온 자신의 화려한 시절을 애타게 목말라 하고 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자신에게 연민과 회한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작은어머니의

젖을 힘없이 빨면서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작은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버지는 5년째 저렇게 누워 있으면서 한 가닥 삶에 대한 애착도 바로 작은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때문이라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다. 아버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눈물이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날 때마다 나는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다. 저 눈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똑바로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본다. 아버지의 눈 속에 처절하리 만큼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을 발견하고 나는 슬펐다.

아무리 아버지가 멋이 있었어도 아버지의 여자들은 모두 아이를 하나씩 두고 두 여자는 도망가고 한 여자는 죽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구박을 하는 어머니를 이해한다.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 못 생겼다는 이유, 집안이 별 것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바람과 매질에도 잘 견디면서 이혼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혼을 못 했다. 남편에게 대들지도 않고 밖에서 낳은 아들 셋과 양녀인 나를 묵묵히 키워 주었다. 나에게 어머니는 어느 날은 살갑게 대하여 주고, 어느 날은 어머니의 분풀이 대상이 되곤 했다.

나는 내가 양녀라는 사실을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동네 아이들에게 들었다. 그때 내가 충격을 안 받은 것은 어머니가 오빠들과 나를 대하는 행동으로 이미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은어머니는 첩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아이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 그러나 가난과 구박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이혼하고 혼자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데려와 다시 아버지 곁에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런 며느리를 극진히 거두었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 모르게 금싸라기 땅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꿔주었다. 손자 손녀를 공부하러 서울로 보내면서 할아버지는 지금 강남이라는 곳에 집을 사 어머니를 서울로 보냈던 것이다. 어머니는 집과 땅의 힘으로 용기를 얻었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악독한 구박과 멸시를 참아냈다. 할아버지는 내가 열 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를 감싸던 할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해 왔다.

어머니는 아버지 뒤통수에 대고 “늙어서 보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른 배에서 나온 아이들을 키웠다. 아버지보다 10살이나 젊은 어머니는 남편보다 10년을 더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내심을 지켜주었다.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오빠들을 어머니는 엄격하게 길렀다. “너희들 버리고 간 에미도 있는데 거두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못된 놈들! 누렁이만도 못한 놈들! 사람 되기는 영 틀렸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에게는 미친년 소리 빼 놓고는 고향을 치지 않았다.

누렁이는 강아지인데 동네에 버려진 것을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키웠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순하고 어머니를 잘 따랐다. 어머니가 안 보이면 밥도 안 먹고 풀이 죽어 있다가 어머니가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며 밥도 잘 먹고 놀기도 잘 했다. 투실투실하게 살이 쪼을 때 어느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와 누렁이를 훔쳐갔다. 무더운 말복 며칠 전이었다. 남정네들의 보신을 위해 그들의 아가리로 들어갔다고 어머니는 몇 달을 두고두고 욕을 해댔다.

어머니가 누렁이를 귀여워할 때는 너무나 따뜻한 모습이었다. 누렁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맑고 훈훈함이 느껴졌다. 나는 어머니의 양면성을 잘 알고 있다. 세상을 행해 한면은 따뜻하고 한면은 불신과 미움

과 분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한 면은 온전히 아버지로 인해 생긴 어머니의 세계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양면을 들락거리면서 삶을 익혀가면서 자랐다.

나는 젖을 물려 피를 흘리는 작은 어머니의 가슴을 옆에 있는 수건으로 꼭 누르고 머리를 바빠 굴렸다. 병원으로 갈까 구급차를 부를까를 두고 잠시 혼란스러웠다. 아무래도 반쯤 떨어진 유두를 봉합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가 모자란다고 해도 이럴 때는 신통하게도 상황판단이 섰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어머니에게 가슴을 꼭 누르라 하고 911에 전화를 하려고 일어섰다.

그때 방문 앞에서 어머니가 딱 버티고 두껍게 된 술방울만한 쌍꺼풀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그 기세에 눌러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아버지 집에 버리고 아버지보다 젊은 사내를 따라 도망갔던 아버지의 첫 여자가, 그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 거지꼴로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 왔을 때, 마침 집에 있던 어머니는 그 여자를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었다. 여차하면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겠다는 듯 쏘아붙이고, 차갑고 무거운 시선이 그 여자의 머리 위에 쏘였다. 그 순간을 애써 참고 기다렸다는 표정이었다.

“이 화냥년! 누구를 속이려고 네 아들을 오씨 집에 버려? 천안 사람들이 다 알고도 모르는 척했지만 나는 못 속인다! 이제라도 네 아들, 아니 김만수 아들 찾아가거라! 내가 시치미 뚝 떼고 우리를 속이려 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김만수를 닮아 가는 것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아냈다! 양심도 없는 년! 아이가 가없어 이때껏 키워 준 것이다. 네가 그 고마움을 알기나 하겠니! 바라지도 않으니까 네 아이 데리고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적지 않은 돈을 그 때까지 키운 큰오빠에게 주었다. 동네사람들에게 들어 자기가 오씨네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큰오빠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울면서 떠났다. 김만수는 아버지가 하는 천안 명물 호두과자 빵집에서 일하던 청년이었다. 아버지가 아주 믿었던 사람이었다.

큰오빠를 떠나 보내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던 모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머니의 마음 한편에 고여 있던 따뜻한 피가 흐르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수류탄이 터지기 직전인 상태에서 내 마음이 조이고 있는데 “빨리 911에 전화를 걸지 왜 꾸물거리는 거냐! 젖통이 그렇게 크니까 몸이 무겁지!” 하면서 어머니는 어느 사이 들고 왔는지 얼음 팩을 작은어머니 손에 쥐어 주었다. 작은어머니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 여자다. 아버지의 두 번째 여자가 낳은 아기와 한 달 차이로 작은어머니도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는 거의 같은 시기에 두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만든 셈이다. 두 번째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죽어서 작은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젖을 먹여가며 키웠다.

작은어머니는 천성이 착했다. 말이 없고 참을성이 많았다. 자기의 견을 내 세우지 않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잘 따랐다. 지금도 젖에서 피가 계속 나는데 얼굴 표정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아버지를 안 만났으면 작은어머니는 심성이 착한 만큼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쩌다 아버지에게 걸려들어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안된 마음이다. 작은어머니는 50대 중반인데 고생을 해서 그런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어머니는 얼음 팩을 작은어머니에게 주고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어머니에 대한 반향인지 아니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과시인지. 아니면

말없이 간호를 하는 작은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의 애정 표현인지. 아버지는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렸다. 나에 대한 미안함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아버지의 입이 실룩거린다. 목이 마르겠지. 있는 힘을 다해 작은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으니까.

나는 항상 작은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놓은 보리차를 아버지의 입에 대주었다. 빨대를 통해 컵 속의 물이 반이나 아버지 목으로 넘어갔다. 목젖이 가늘게 움직였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시선도 아버지를 떠나 작은어머니의 가슴으로 옮겨졌다. 나는 어머니의 눈에 작은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표정이 스쳐 지나감을 보았다.

병원에 갔던 작은어머니가 어머니 차로 돌아왔다. 상처가 생각보다 그리 깊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의 죽 그릇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 송장처럼 꼼짝도 않고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또 큰일을 보았는지 냄새가 지독했다. 기저귀를 갈고 닦아주는 것은 작은어머니의 몫인데, 아픔에 찡그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도 그랬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입을 실룩실룩 움직였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목이 마를 때 그런다. 저렇게 힘도 없는 입으로 어떻게 작은어머니의 유두를 물어뜯었는지 믿기가 힘들었다. 아랫도리는 감각이 없으니까 배설물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진 않을 것이다. 지금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어나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작은어머니의 젖을 문 사건은 충격이고 놀라 수선스러웠지만, 지금 집안은 그런 일은 아주 오래 전에 지나간 듯이 조용했다. 평화롭기까지 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작은어머니를 데리고 외출을 했다. 작은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함인지도 몰랐다. 나는 아버지의 점심을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잠들어 있다. 잠든 아버지의 불쌍해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다 답답증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뒷마당의 빨간 장미꽃이 향기와 함께 창을 통해 들어왔다. 맑은 공기도 함께 들어왔다. 방 셋짜리 조그만 집. 세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마음의 교류 없이 사는 집. 할아버지 땅으로 하여 생긴 집. 부엌 캐비닛과 집안의 색깔이 이 집 분위기만큼 칙칙했다. 어둡고 칙칙함을 다소 해결해 주는 것은 어머니가 정성껏 심어 놓은 정원의 장미들이다.

장미를 심어놓은 옆에 어머니가 심은 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분꽃을 심는 숨겨진 어머니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었다. 어머니는 결혼하고 일 년은 행복했었다. 분꽃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었다. 분꽃은 까만 씨앗을 땅에 떨어뜨려놓고 다음 해 다시 스스로 피어났다. 아버지를 구박하는 어머니는 분꽃에 물을 열심히 주었다.

남편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살면서도 어머니는 고향 집 앞마당에 분꽃이나 채송화 같은 꽃을 많이 심었었다. 꽃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준 땅과 집을 팔아 코리아타운에 아담한 쇼핑센터를 사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당당했다. 올해 나이 60세다. 촌스럽게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하며, 남편이 누워있는데 무슨 환갑이냐고 그냥 조용히 보냈다. 그래도 작은어머니가 미역국에 잡채며 갈비를 푸짐하게 차려 주었다. 작은어머니는 1년이나 걸려서 짠 목도리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 보라색의 화려한 목도리를 받고 어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버지 방에는 2인용 침대 두

개가 나란히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하나는 작은어머니가 잔다. 환자 때문에 침침해 보인다고 들여놓은 밝은 꽃무늬의 소파 위에는 작은어머니가 읽는 성경책이 놓여있다.

나는 작은어머니가 자주 바라보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서 내 생각을 한다.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지... 내 꿈은 무엇이며 내 희망은 무엇인지... 머리가 모자라 공부는 아예 포기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음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부엌을 작은어머니에게 맡겼다. 작은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음식 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점에 취직을 했다. 열심히 잘하고 지냈는데 주방장이 나를 귀찮게 굴어 내가 그만 두었다. 운전을 못하니까 출퇴근도 힘들어 하던 차였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다 시집이나 가라고 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작은어머니는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고 일요일에는 꼭 교회에 간다. 일요일에는 그 일을 내가 맡는다. 그러나 기저귀 가는 것과 몸을 구석구석 씻기는 것은 그 날만은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맡는다. 어느 날 급한 전화가 와서 어머니에게 알려려고 아버지 방문을 열다 나는 깜짝 놀랐다. 깨끗이 씻겨 진 흰히 드러난 아버지의 아랫도리를 어머니가 동정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아랫도리는 보기에도 민망했다. 나무 장작처럼 앙상한 두 다리 사이에 겨우 달라붙어 있는 아버지의 그것은 소금에 바짝 졸여진 오이지처럼 보였다. 당당하던 아버지의 몸은 어디로 달아난 것일까. 아버지의 자존심과 함께 도망가 버렸는가 보다. 아버지는 자신의 지난날들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아버지의 살아 있는 뇌 속에서는 창피함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치욕과 공포감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야 말로 지금 바로 어머니가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닐까. 승리감과 복수의 만족감으로 또 다른 오르가즘을 느낄 것이다. 자신이 당한 치욕과 분함을 참고 또 참으며 남의 아이들을 묵묵히 길러낸 어머니, 어머니의 얼굴엔 승리감으로 가득찬 자만이 엿보였다.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듯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쏟아내 놓았다

“이게 무슨 꼴이야? 당당하던 당신이 이런 꼬락서니라니.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별받은 거야, 알아? 나도 여자였고 살아 있는 사람이었어! 나도 인간이었어. 그러나 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없었어. 여자로 살 권리와 사랑을 받을 권리마저 당신에게 박탈당했지! 당신 이렇게 된 것도 그년 때문이지? 노래방에서 만났다는 노래방 도우미 때문이지? 당신하고 자는 사진 찍혀 돈 내놓으라고 협박받고 불안에 떨었던 당신이었어. 몇 달 후면 이민을 것을 그 사이에 또 바람을 피우다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 뉘우치고나 있는 거야? 당신 둘째아들,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재산 다 날리고, 미국까지 찾아와서 돈 더 내놓으라고 당신에게 대들고 발길질까지 했지 그런 당신을 보면서 내 속이 어땠는지 알아? 그래도 남편이라고 당신이 불쌍하더라. 당신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당신 둘째아들은 아직도 당신을 괴롭혔을 거야. 내가 속이 없는 년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야! 당신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기가 하나도 안 죽었었지. 나보고 땅 내놓으라, 집 내놓으라 하고 내 머리털을 얼마나 뽑았는지 기억나지? 암 기억해야 하지! 잊어버리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니까. 내가 왜 이 나이에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당신은 알 거야. 나도 당신에게 한번쯤은 예쁘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지만 당신에게 맞아 뼈뺏어진 코 때문이야! 화가 나는 대로 하자면 지금 당신 발길로 꿇 차주고 싶어! 그러나 안 그러는 것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인 줄은 알겠

지! 당신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 땅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줄은 알겠지? 그 땅과 집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야! 당신에게 그때 땅을 빼앗겼다면 형편없는 값에 팔았을 것이고, 또 여자들 치마 속으로 다 들어갔겠지. 보험도 미쳐 못 든 우리가 당신 치료비는 어디서 나올 수가 있었겠어. 내 코가 빠돌어지도록 당신한테 얻어맞았어도,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어머니는 할 말을 다 한 듯 아버지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담요를 덮어주고 방을 나왔다. 그러는 어머니의 얼굴이 무척 피곤하고 늙어보였다. 성형수술한 얼굴도 결국 돈만 낭비 한 꼴이 된 것 같다. 어머니는 열이 올랐는지 부엌으로 가 찬물을 별걱별걱 들이켰다. 그리고 힘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영양제 여러 병이 서로 “나를 먼저 먹으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오천석은 무섭고 고집불통에다 본 부인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바람둥이고 칭찬할 만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단지 인물이 잘생겨 어디서나 눈에 확 띄었다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장점이 라고 할 것이다. 그래도 사업 수완은 있어 할아버지가 물려 준 재물을 잘 키워갔다. 서울에 빌딩도 사고 집도 샀다.

그러나 두 오빠들의 농간에 넘어간 아버지는 오빠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물려주었다. 오빠들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장가를 들어 아이까지 낳은 아내들 몰래 여자들을 두었다. 아버지가 떳떳하게 여자를 둔 것하고 다른 점은 시대가 그래서 오빠들은 몰래 그러다 들기곤 했다. 결국 작은오빠는 이혼을 했다. 딸 둘은 빌딩 한 채와 함께 여자가 데려갔다.

작은어머니가 낳은 막내오빠도 여자문제로 이혼을 당했다. 이혼한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무시했다. 무식하다고, 교양이 없다고, 욕을 잘

한다고 무시했다.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어머니는 떳떳하고 당당했다. 천안이 발전하면서 천안에 있는 금싸라기 땅값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강남의 발전으로 텃밭이 팔린 집 주위가 아파트 단지로 변하면서 집을 팔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어머니의 어깨는 매일매일 넓어졌다. 어머니는 당당하게 이혼을 한 며느리들의 용기를 부러워했다. 암 그래야지,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하면서 어머니를 무시했던 며느리 편을 들었다.

어머니가 이민을 결심한 첫째 이유는 작은오빠의 횡포와 협박 때문이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위자료와 놀음에 다 탕진한 작은오빠는 어머니의 금싸라기 땅과 강남의 집을 노렸다. 코가 삐뚤어지게 맞고도 아버지로부터 지킨 땅을 작은오빠의 횡포와 핍박에 넘어갈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쁜 놈! 에미 얼굴도 몰라 불쌍해서 살뜰히 키우고 공부시켜 놓았더니 감히 나를 협박해! 망할 놈!” 어머니는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화를 참기도 했다. 미국으로 이민이라도 가야 작은오빠로부터 땅과 집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긴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이민수속을 했다. 어머니 오빠인 외삼촌은 이미 오래 전에 이민수속을 해 놓고 있었다. 외삼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먼저 아버지와 나를 데리고 LA로 왔다.

외삼촌은 어머니의 단 하나뿐인 혈육인데 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외삼촌은 이곳에서 부동산으로 성공을 했다. 외삼촌은 나도 사랑해 주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외삼촌이다. 내게도 외삼촌 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민을 결심한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걸려들은 노래방

도우미와 그녀의 남편이라는 무서운 남자 때문이었다. 이상한 사진을 찍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협박했다. 어머니는 기가 조금도 죽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움켜지고 있는 땅과 집마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웠다. 워낙 궁지에 몰렸던 아버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사실은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실망한데다가 노래방 도우미의 끈질긴 협박 때문에 어디든 달아나고 싶었을 것이다.

미국에 와 자리를 잡은 뒤 미국까지 찾아온 작은오빠의 횡포에 아버지가 쓰러지자 어머니는 작은어머니를 데려왔다. 수속을 하는데 외삼촌이 또 많이 도와주었다. 작은어머니가 낳은 막내오빠는 사기죄로 감옥에서 4년을 지내다 나온 후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죽었다. 조상의 선산까지 모두 팔아 먹은 것은 이 막내오빠였다.

작은어머니는 여러가지 일로 아버지 앞에서는 죄인처럼, 그런 자기를 거두어 준 어머니에게는 고마워하고 절절 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작은어머니에게 냉정했다. 아버지를 간호하는 대가로 매달 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했으며 집안 살림을 맡겼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3일에 한번씩 한국 장을 봐오고 일주일에 한번 미국 마켓에 다녀온다.

작은어머니는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다. 항상 떠들어대는 어머니와 조화를 이루어 집안이 겉으로는 평화롭게 돌아갔다. 그러나 커튼을 거두고 들여다보면 한심하고 어둡고 싸늘한 기류가 집안 곳곳에 괴괴하게 흘러다닌다. 나는 이 괴괴한 기류에 휘말려 떠돌아다니지만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은 남자에 대한 욕망만큼 간절하다.

나도 언젠가는 밝은 분위기에 잠기고 싶고 독립하고 싶다. 나 혼자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싶다. 밝은 색의 커튼을 달고 어머니가 싫어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고 친구와 따뜻한 커피도 나누고 싶다. 나를 아껴주는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고 싶다. 나도

이런 꿈이 있고, 나도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저런 꼴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

32년 전.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다. 눈도 유난히 많이 왔고 바람도 세차게 부는 겨울이었다. 어디서부터인지 한 여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군용 담요를 뒤집어쓰고 어머니네 동네로 흘러 들어왔다. 머리는 산발하고 얼굴은 씻지를 않아 터지고 머리카락에 덮여 나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 동네의 어떤 집 헛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주인이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주었다.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웠다.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도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어 댔다. 터진 손등 위에 피가 묻쳐 있었다. 찢어진 검은색 양말 밖으로 더러운 발가락이 빠져나와 있었다. 발가락이 벌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동상에 걸린 듯했다. 흐릿한 눈동자는 흐늘흐늘 움직였다. 겁먹은 얼굴에는 배를 채웠다는 만족감도 엿보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고 헛간에 누워 있었다. 주인이 이불도 갖다 주긴 했지만, 더 이상 거기 그대로 있게 할 수가 없었다. 죽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매정하게 쫓아낼 수도 없고, 다른 집에서 데려갈 리도 없으니 난감한 일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나섰다. 마침 동네에 비어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대충 고치고 그 여자를 들여놓았다. 매끼 밥을 갖다 주고 옷도 주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밥은 먹었지만 옷은 갈아입지 않았고 몸을 씻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들를 때마다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고 하면 히죽히죽 웃기만 했다.

동네 사람들도 추우니까 집안에 처박혀 있어 그 여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미 세 아들을 밖에서 만들어 어머니의 심장에 화살을 박고 있을 때였다. 세 번째 여자인 작은어머니마저 도망간 후라 세 아들을 어머니가 기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어머니가 사라진 후 기가 조금 죽어 있었다. 세 아들을 생각하고 가정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어머니도 애들에게 정을 주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딴 여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고맙기까지 했다. 아버지도 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발길질은 하지 않았다.

그때가 어머니 삶의 전성시대였다. 아버지는 가끔, 아주 가끔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도 건넸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어느 사이 욕이 사라지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다.

겨울은 지루하고 길게 지나가고 처마 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으면서 봄이 왔다. 움츠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하면서 흘러들어 온 그 여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여자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서 이집 저집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따라 여기저기 쫓아다녔다. 아이들이 그 여자에게 미친년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간혹 아이들이 그 여자가 입고 있는 누더기를 잡아당기면서 놀려도 히죽히죽 웃기만 하지 화는 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미친년, 을 인정하고 먹을 것도 번갈아 갖다 주었다.

날씨가 따뜻해져도 그 여자는 찢지를 얹아 냄새가 나고, 여전히 나이를 짐작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여자를 돌봐주었다. 그 여자는 어머니만 나타나면 더러운 얼굴에 반가움을 가득 채우고 손을 흔들었다. 역시 말을 못하는 병어리인 것은 확실했다. 말을 못

하니 그 여자가 어디서 오고 가족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여름이 되었다. 그녀도 걸쳐 입은 누더기를 하나하나 벗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매가 드러나자 동네 남자들의 시선에 끈적거림이 묻어 나왔다. 한여름이 되어 뜨거운 햇살에 땀이 나니까 그녀는 그제야 동네 개울에 가서 옷을 벗고 몸을 담갔다. 그때부터 온 동네가 수선스러워져 갔다. 그녀의 몸매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른 살도 채 되지 않을 듯 했다. 어머니가 갖다 준 원피스가 몸에 맞지 않아 단추가 풀어진 옷을 헤치고 나온 탐스러운 젖가슴은 온 동네 남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짙은 다리는 미끈했으며, 팔뚝은 토실토실 살이 올라 같은 여자라도 만져주고 싶을 만큼 육감적이었다. 얼굴은 가름하고 커다란 눈은 깊고 천진스러웠다. 거기다 옷을 때에는 귀여운 보조개까지 들어가니 말 못 하고 바보스러운 것 빼고는 완전한 미인이었다.

그녀가 그 몸매를 드러내놓고 동네를 다니자 동네 여자들이 서로 험령한 옷들을 갖다 입혀 주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몸매를 감상한 남자들은 가슴이 뛰었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녀가 거처하는 그곳에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면가 하는 소문이 온 동네를 휘저었다. 그네들은 남편 간수하느라 눈에 불을 켜다. 도저히 마음을 놓지 못했던 것이다.

드디어 어머니가 나섰다. “미친놈들, 건드릴 여자가 없다고 미친년을 건드려! 개만도 못한 놈들! 이러다가 동네 남자들 에비 아들 가리지 않고 다들 동서지간이 되겠구먼! 더러운 놈들!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짐승 같은 놈들!” 하고 있는 대로 욕을 해댔다.

어머니가 평소에 욕을 너무 한다고 흉을 보던 그네들도 이번에는 아주 통쾌해 했다. 어른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남자애들까지 그녀

가 있는 곳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에 걱정하던 터라 어머니가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는 동네에 거지가 와도 꼭 밥 한끼 먹여주고 헌 옷이라도 주어 보내곤 해 왔다. 남편의 바람기에 질려버린 어머니는 동네 남자들의 못된 행동을 막기 위하여 그녀를 데려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녀를 비어 있던 아래채 방에 머물게 하고 될수록 밖에 나다니지 않게 지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가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 먼저 살던 그 빈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동네 여자들도 몰랐다.

“저년 나쁜 년이야! 저년 미친년이야! 사내 맛을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니 동네서 쫓아내야 해!” 그렇게 언성을 높여댔지만 누가 나서서 쫓아내지는 못 했다. 시끄러운 여름이 끝나 갈 무렵 그녀는 외출을 하지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었다.

그렇게 아귀아귀 먹어대던 그녀는 음식을 잘 먹지도 않게 되었다. 어머니는 “몸을 정신 나간 놈들에게 혹사를 당했으니 병이 안 나고 배길 수가 있었겠나. 나쁜 놈들! 어찌자고 그 불쌍한 것을 농락해, 미친 놈들!”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죽도 끓여다주고,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돌보아주었다. “아무리 미쳤어도 정신 좀 차려라! 이 불쌍한 인간아. 어찌다 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에게도 무슨 기막힌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내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다만. 남자들 다 도둑놈들이야. 제 욕심들만 채우는 거란 말이다. 이 멍청아!” 이렇게 타이르면서도 어머니는 남자들이 사족을 못 쓰는 그녀의 육감적이 몸매를 부러운 듯 찬찬히 바라보았다. 저렇게 미쳐 제 몸을 굴리지 않더라도 남자캐나 끌어들었을 몸매였다.

여름이 지나가고 곡식이 여무는 가을이 왔다. 모두가 추수하기에 바빠 그녀에게 관심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 해는 아주 풍년이 들어 동네 사람들 모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그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게걸스레 먹어대던 음식도 안 먹고 밤 마실 도 하지 않았다. 축 늘어져 잠만 잤다. 한동안 구역질도 했다. 어머니는 과식을 하더니 급기야 위가 탈이 난 것이지 하면서 죽을 끓여 먹였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이를 어찌나! 이를 어찌나! 정신도 온전치 못한 주제에 애를 배다니! 불쌍한 년! 어느 놈의 새끼인 줄 어떻게 알아내나!” 하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죄를 지은 남자들은 젊거나 늙었거나 불안에 휩싸였다. 혹시 아이가 태어나 자기를 닮으면 어찌나 해서였다. 음흉하게도 남자들은 그녀의 배가 더 불러지기 전에 스스로 동네를 떠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중 박씨 부자는 더욱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겨우 17살인 박씨 아들이 어느 비오는 날 밤에 그녀를 찾아갔다. 한참 나이에 주체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을 그녀에게 쏟아 놓은 후 그 맛에 아편을 피우는 사람처럼 이틀이 멀다하고 그녀를 찾아갔다.

그 날도 그런 생각을 하자 벌써 뻗뻗해진 몸뚱이를 달고 그녀의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느 남자가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고 어둠 속에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순간 박씨 아들의 눈에서 불이 확 타 올랐다. 마침 방문 앞에 있던 빗자루로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그의 등짝을 후려쳤다. 얼떨결에 당하고 방바닥에 동맹이쳐진 그의 얼굴을 보자 박씨 아들은 기절했다. 바로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온 동네가 불안에 떨고 있어도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어머니는 방에 불도 따뜻하게 지퍼주고 고기국도 끓여주었다. “불쌍한 인생! 아이를 낳으면 젖이나 먹일 수 있는지, 지가 어미가 되는 줄은 아는 지…….” 하면서 아이를 가진 그녀를 부러워했다. 저런 년도 아이를 가지는데……. 허기야 하늘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는데 별을 어찌 딸 수 있으랴 하고 신세 한탄도 했다. 동네 여자들은 입을 닫고 어머니 집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자칫 자기들 남편이 혹시 아이 아버지로 오해를 받을까 봐 겁을 먹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그녀의 배는 더욱 더 불러왔고 어머니는 부지런히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대청마루로 데리고 와 걷게도 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설거지도 시켰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아이가 너무 커져 아이 낳기 힘들다는 정도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아이를 가진 듯 착각하고 살았다. 음식도 푸짐하게 해주고 몸도 깨끗이 하게 했다. 태어날 아이 옷도 부지런히 준비했다. 과일도 좋은 것으로만 먹게 했다. 어느 엄마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다.

동네 남자들을 불안 속에 빠지게 한 겨울이 천천히 지나가고 봄이 왔다. 그 봄, 3월 들어 그녀는 거의 하루의 진통 끝에 토실토실한 여자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아이가 신기한지 자꾸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몹시 놀랐다. 모성애의 발로는 누가 시켜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남편의 여자들은 밖에서 낳은 아이들을 키워서 집에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아기는 처음 대하는 어머니는 흥분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가 신기했다. 출생이라는 것이, 한 생명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구

나 하는 신비함을 느꼈다. 긴 진통 끝에 그녀의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의 머리를 보고 어머니는 너무 신기해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던 것이다.

동네는 조용했다. 아이도 잘 자랐다. 머리가 까맣고 코가 오뎅한 것이 엄마를 닮았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배꼽 주위와 손등에 흐릿한 점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은 점순이가 되었다. 가끔씩 아이를 들여다보는 동네 여자들이 지은 이름이다.

점이 점점 뚜렷해지자 어머니의 가슴에 쇠 덩어리가 매달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우박이 떨어져 어머니의 심장을 때렸다. 아프다 못해 몹시 쓰리고 따가웠다. 심장이 갈라지는 것 같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의 피가 심장을 향해 빠르게 역류함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 속에서 고장 난 차에서 나는 엔진소리 같은 소리가 나 잠을 잘 수조차 없었다. 동네 여자들은 아이가 자기 남편이나 아들을 안 닮았다는 사실에 크게 안심하고 있었다. 반대로 어머니의 충격은 커져 가기만 했다.

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는 동네 여자들에게 아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 손등에 난 점은 대수롭지 않았다. 배꼽 주위에 난 달걀 모양의 검은 점! 이것이 문제였다. 남편의 배 주위에 있는 검은 점과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분명한 그 점! 어머니는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일까, 아니면 농약을 국에 타서 죽일까 하고 깊은 번민에 빠졌다. 언제 어떻게 그 녀를 건드렸을까 하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답이 안 나온다. 집에서는 자신이 지켰고 동네에 남편이 그녀의 거처에 들락거린다는 소문도 듣지 못 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끝내 몸져누웠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셋이나 가졌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미친년을! 세상에! 온 동네 남자들이 다 건드린 미친년을 건드렸다니, 그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 원수

를 어떻게 갚을까.” 이가 으드득 갈렸다.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사람도 아닌 남편을 용서할 가치도 없었다.

남편은 마누라 속도 모르고 점잖게 어깨를 펴고 동네를 다녔다. 태연히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다. 또 다른 배신감에 어머니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세 아들과 그 미친년과 아이를 그에게 떠맡기고 시아버지가 준 금싸라기 땅을 팔아 지긋지긋한 오씨 집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끝까지 살아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떠난다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복수의 일념으로 기운을 차려 일어났다. 남편에게 달걀 모양의 아이의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백일이 지났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두고 어디론지 가버렸다.

그 후 지금까지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세월은 흘러갔다. 어머니는 가슴에 복수의 커다란 덩어리를 키우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 어머니는 이 비밀을 아버지에게 숨긴 채 딸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양녀로 입적을 시키자고 했다. 아버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러자고 했다.

양녀와 양부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일차 복수의 계획은 성공한 셈이다, 오직 어머니만 아는 비밀이다. 어머니는 그 비밀을 지키는 일과 복수심 때문에 살아왔다.

※

어머니의 말없는 복수의 칼날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건강은 움직

이지 못 하는 것 말고는 아주 좋은 편이었다. 작은어머니의 기도 탓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속으로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아버지의 의지가 강한 때문인지...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겉으로 아버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씹씹하게 밥도 잘 먹어뒀고 나에게 미친년 소리도 활기차게 했다. 요즈음은 요가에 취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외출한다. 그럴 때면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옷을 사 입어도 촌스럽기는 마찬가지지만..... 가끔 남자에게서 전화도 걸려온다. 전화를 받는 어머니의 음성은 나에게 미친년이라고 할 때와는 정반대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에 저음으로 느리게 말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무리 우아함을 떨어도 내 귀에는 천하게 들렸다. 가끔은 대화 속에 영어를 섞어 쓰기도 한다. 중학교 학력에 비하여 영어는 조금 하는 편이다.

미국 오자마자 결석 한번 안 하고 커뮤니티 랭귀지 스쿨에 들어가 열심히 배운 탓이다. 나하고 같이 다녔는데 어머니의 영어 실력이 조금 앞섰다. 가끔은 아버지 앞에서 휴대전화도 받으면서 커다란 소리로 영어로 말을 한다. 아버지가 속으로 놀랄 것을 계산해서다. 아버지가 놀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다. 그런 행동으로 어머니의 복수는 끊임없이 이어져 갔다.

내가 입양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시침을 떼다. 내가 알아낸 것은 아버지의 배주위에 난 점을 본 후였다. 내가 아는 척을 하면 어머니의 복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모자란 내 머리에서 나온 신통한 생각이다. 미친년 소리는 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나에게 특별하게 구박한 기억은 없다. 내가 어머니 편으로 기운 것은 내가 생각해도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미친 엄마를 닮아선지 머리가 조금 모자란다고 한다. 남들이 그런다. 특별히 어머니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모자라니까 공부 못 한다. 모자라니까 남자들에게 매번 버림을 받는다. 모자라니까 실실 잘 웃는다. 모자라니까 남자에게 금방 몸을 준다. 모자라니까 먹어댄다. 더 많지만 여기서 내 모자람에 대해서는 이쯤으로 끝낸다.

나는 나를 거쳐 간 몇 남자들 중 브라운을 사랑했다. 나이는 나보다 7살쯤 많다고 했지만 젊어보였다. 여자처럼 머리를 길렀고 청바지가 브라운의 긴 다리에 잘 어울렸다. 손은 통통하고 하얗다. 그 손으로 내 머리를 만질 때 나는 기분이 황홀해졌다.

브라운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쪽을 닮아 한국사람처럼 보인다. 그 동안 내가 같이 잠을 잤던 남자들과는 달랐다. 브라운의 강렬한 눈빛을 보면 내 몸이 스스로 흥분된다.

어머니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다. 내 머리를 손질하면서 어쩔 이렇게 부드러운 머리를 가졌느냐고 했다. 살결이 너무 곱다고 했다. 웃는 얼굴이 순진하다고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나에게 특별하게 굴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여자임이 자랑스러웠고 나를 미국으로 데려온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내가 그에게 미용사라고 부르니까 “미용사라니? 헤어 디자이너야”라고 했다. 나로서는 미용사나 헤어 디자이너나 별로 다른 의미를 못 느꼈다.

브라운을 만난 후 나는 다른 남자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브라운을 위해 몸매를 매만지고 허리통을 줄이려고 조금씩 먹고 저녁마다 동네를 몇 바퀴씩 뛰었다. 미용실에 갈 때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그는 아는 것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별로 읽지 않던 한국 신문을 열심히 읽고 내 머리가 모자란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슬픔을 느꼈다. 그와 그럴 듯한 대화를 나누고 싶고, 영화구경도 가고 싶고, 산타모니카 바닷가에 가고 싶었다. 미용실에 오는 그의 손님인 여자들은 젊고 멋있게 보였다. 영어도 잘하고 농담도 잘했다. 나는 운전면허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혼자 운전을 못하는 것도 슬펐다. 혼자 운전을 할 수 있다면 미용실에도 혼자 자주 가서 그에게 머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머니가 미용실에 갈 때는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브라운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머리를 감으러 미용실 뒤쪽으로 간 사이 그가 나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저녁 7시쯤 집 앞으로 아무도 모르게 나오라고 했다.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눈앞에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저녁을 먹는둥 마는둥 하고 양치질을 정성스럽게 한 뒤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산 빨간색 속옷을 입었다. 그 동안 경험으로 보아 저녁을 먹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자마자 남자들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모텔이나 호텔로 가게 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에서 몰래 미리 털어다 놓은 향수를 뿌리고 도둑고양이처럼 살짝 현관문을 열고 집 앞으로 나왔다.

이 시간 어머니가 나를 찾지 않는 것도 다행이다. 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아현동 마님』 연속극 보느라 꿈쩍도 않는다. 마침 오늘 비디오를 3개나 빌려 왔다. 그 나이에 마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흥분하고 마음 조린다. 나이 먹어도 사랑의 감정은 늙지 않는가 보다.

10분쯤 기다리니까 브라운이 검은색 스포츠카를 몰고 왔다. 연속극에서처럼 차에서 내려 내 어깨를 감싸면서 자동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에게서도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가슴이 뛰고 숨이 고르지 못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앞만 보고 운전을 했다. 나도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운전을 하던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너는 다리가 매력적이라고 언제인가 그가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내가 보기에도 탱탱한 내 허벅지가 자랑스러웠다. 그의 손이 미니스커트 밑으로 들어옴은 당연했다. 내가 몸을 움츠리자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더 자극시켰다. 그가 내 허벅지에서 손을 거두자 나는 섭섭했다. 그냥 그대로 오래오래 자극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른 남자들에게서 느껴 보지 못했던 야릇한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남자들은 내가 조금 모자란다고 여기고 아무렇게나 나를 대했다. 무조건 옷을 벗으라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나가 떨어져 잠을 잤다. 차 문을 열어 주지도 않았다. 따뜻한 칭찬도 해주지 않았다. 내 몸을 이렇게 감미롭게 만져주지도 않았다. 와락 내 젖가슴을 물어버리고 풍성한 먹이를 눈앞에 놓은 사냥군처럼 험쩍대는 것이 전부였다.

브라운은 잠시 후에 내 손을 살며시 끌어다 자기 허벅지 위에 놓았다. 나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놓고 힘을 주었다. 내 머리가 모자라도 나는 금방 알아 차렸다. 내 손으로 그의 허벅지를 자극했다. 그의 바지 위로 그의 몸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브라운은 코리아타운 근처 방 하나짜리 타운 하우스에 혼자 살았다. 집 안은 그의 성격처럼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혼자 자기에는 넓은 킹사이즈 침대와 4인용 식탁과 가죽 소파가 잘 매치가 되었다. 그는 와인 1병과 잔 2개를 준비해 놓았다. 크리스털 와인 잔이 전등

불빛에 반짝거렸다. 그는 음악을 틀었다. 무슨 음악인지 몰라도 아주 감미롭게 내 귀를 자극했다. 나는 내가 공주가 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와인을 마셨다. 입안이 달콤해져 갔다. 그가 내게 키스를 했다. 나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돼지고기 삼겹살과 마늘냄새가 났던 첫 번째 남자, 술 냄새를 지독하게 풍겼던 두 번째 남자, 아예 키스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옷을 무지막지하게 찢었던 세 번째 남자와 그는 너무 달랐다. 그는 천천히 우아하게 내 옷을 다 벗기고 나를 침대 끝에 앉혔다. 그리고 그는 내 코앞에 서서 바지를 벗었다.

그 날 그와의 잠자리는 환상이었다. 그는 서두르지도 않았고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유행가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브라운 생각에 행복하고 자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다음은 한 달에 한번 만나더니 어느 날부터 그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웠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는 받지 않았다. 아니 처음에는 받으면서 바쁘다고 했다. 그리고 전화 걸지 말라고 했다. 다른 남자들처럼 그도 내 몸에 싫증을 낸 것 같다. 아마 내가 모자라서 그런지도 모른다. 남자와 잘 때 나는 참 바보 같은 행동을 잘 한다. 남자가 한참 열을 내는데 나는 자꾸 웃는다. 처음 남자들은 재미있어 하다가 나중에 내가 미친 줄 알고 나를 멀리한다. 나는 절대로 미치지 않았는데 말이다. 아니 어머니가 부르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미친년인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점점 말이 없어져 갔다. “미친년! 별안간 병어리가 돼버렸니! 아니면 정말로 미쳐버린 것인지 참 답답해서 살 수가 있니!” 어머니의 잔소리가 다른 각도로 늘어갔지만 그녀는 무엇이 좋은지 행복한 표정을 짓고 더 이상 야단치지 않고 더욱 모양을 내고 외출이 잦아졌다.

외출이 잦아질수록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는지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세상이 싫어져 갔다. 나 같은 사람 무엇 때문에 살아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늦은 아침에 일어나 잠옷 입은 채로 부엌으로 가 작은 어머니가 해 놓은 콩나물국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밥도 먹고, 입맛이 없을 때는 아버지 주려고 끓여 놓은 전복죽도 먹고, 호박죽도 먹는다. 그리고 양치질만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 또 잠자고 일어나 라면이나 국수로 점심 먹고 저녁은 안 먹는다.

오늘도 같은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문득 나는 브라운 집에 가고 싶어졌다. 마침 일요일이니까 이 시간 그는 집에서 음악을 듣는지 책을 읽는다. 어떻게 가나하고 생각하다 택시 생각이 났다. 한국 음식점에 가면 택시 회사 명함이 있는 것을 어머니가 한 장 집에 갖다 놓은 것이 떠올랐다. 언젠가 그가 파티에 가는 특별한 손님 머리를 해주면서 먼저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며 집 열쇠를 준 것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나는 택시를 부르고 옷을 입었다. 향수도 뿌렸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신통해 했다. 그렇다. 나는 미친년이 아니다.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판단력도 있다. 나는 그렇게 바보도 아니다.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면 사랑도 없다는 것도 안다.

브라운 집까지 택시 요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택시 기사가 내 가슴을 흘끗흘끗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면서 나는 택시에서 내렸다. 가슴이 조금 뛰었다. 그가 왜 왔느냐고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생겼다. 그래도 한번은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가 그를 단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가지고 현관문 앞에 당당하게 섰다.

벨을 누를까 하고 있는데 집 안에 불이 안 켜져 있다. 그가 아직 안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가 최근에 독립해 돈을 많이 들여 근사한 미용실을 차렸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미용실 일이 바빠 그가 늦을 수도 있다. 나는 백에서 열쇠를 꺼내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그는 집 안에서도 신을 신기 때문에 나는 운동화를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조용했다. 응접실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침실 쪽에서 여자의 울음소리 비슷한 것이 들렸다. 나는 가만히 침실 문을 열었다. 그가 항상 잘 때에도 켜 놓는 푸른색 불빛에 비친 물체를 보고 나는 숨이 헉 막혔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브라운의 날씬한 몸 위에 살이 통통하게 찢어 어머니가 실리콘이 들어있는 가슴을 흔들면서 울고 있었다. 그런 행동에 너무 열심인 동물들은 내가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 줄도 몰랐다. 어머니는 미쳤다. 그래 어머니가 미친년이다. 어떻게 그를, 나와 그런 사이인 줄 다 알면서 어떻게 그를 유혹했던 말인가.

별안간 그가 근사하게 차렸다는 미용실과 어머니의 잦은 외출이 내 머릿속에서 왔다갔다했다. 숨이 턱까지 차 올랐다. 그 자리에 금방 쓰러질 것 같다. 어머니의 넓적한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렸다. 내 머릿속도 같이 좌우로 흔들렸다. 아버지의 뇌 속에 조금 살아 있는 신경들이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렇게 흔들렸을 것이다.

아버지가 불쌍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아니다. 나에 대한 야비한 복수다. 아버지와 그 미친년 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는 벌이기도 했다. 욕실에 가서 뜨거운 물을 받아다 저 짐승들 위에 확 끼얹고 싶다. 가끔 브라운이 방 안에서 연습하는 골프

채로 어머니의 머리통을 깨고 싶다. 아니다. 당장 침대 위로 뛰어 올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싶다. 등을 물어뜯고 그의 얼굴을 발로 콕콕 밟아주고 싶다. 어머니의 가슴을 물어뜯어 실리콘을 터뜨리고 싶다.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란 말이야! 이 나쁜 놈아 내 것이 진짜야!”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짓도 하지 못하고,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짹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방을 나왔다. 들어갈 때처럼 가만히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가 금방 와서 다행이었다.

어머니도 느지막하게 약간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기분이 좋은지 몸을 가볍게 움직였다. 현관문 소리에 방에서 나와 있는 나를 뻔히 쳐다보고 “미친넌! 잠 안 자고 왜 나와 있는 거야! 설마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얼른 들어가 잠이나 자.”

목소리는 컸지만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렇겠지. 지금 하늘에 올라간 기분일 테니까. 그러나 브라운이 얼마나 더 당신을 만날지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두고 보자”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그랬다.

나는 이를 부르드득 갈면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브라운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무엇인지... 할 아버지의 금싸라기 땅이 아까워져 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브라운 때문에 미쳐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접었다고 생각되자 내가 화가 났다. 어머니가 그에게 너무 폭 빠져 버린 증거이기 때문이다. 질투의 고통이 나를 못 살게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된다. 어머니가 갈 길을 잘 못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내 고민은 깊어졌다. 모자라는 내 뇌 속의 신경들을 다 동원하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았다. 아버지라는 남자에게 어머니가 내 대신 복수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방법이 안 나오고 질투의 감정도 없어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갔다. 내 추측대로 어머니의 외출이 뜸해지고 또다시 잔소리가 늘어갔다. 작은어머니만 죽을상이 되어 갔다. 어떻게 해도 어머니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관심을 끊고 있었다. 브라운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 돈의 약탈이 떨어진 늙고 볼품없는 어머니를 누가 쳐다보거나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나는 후련해지는 마음을 애써 감추었다.

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본 어머니가 비웃는 눈으로 나를 찌려본다. 아침 식탁에서였다. 작은어머니가 식사를 못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오래 만에 육개장을 끓였다. 나는 나를 찌려보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국에 밥을 말아 맛 있게 먹고 있다.

“너 그 놈 만나니?”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다.

“미친 년! 그 놈 너 사랑하지 않아! 알고 있겠지?”

“어머니도 사랑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돈을 이용했을 뿐인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속을 끓이고 있어요?”

내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머니의 국그릇이 내 얼굴로 쏟아졌다. 뜨거웠다. 아! 하는 내 비명소리와 함께 나도 내 밥을 만 국그릇을 어머니의 얼굴에 쏟아 부었다. 육개장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은 독이 올라 뜨거운 줄도 모르고 서로를 노려보았다. 우선 몹시 도전적인 나의 행동에 어머니는 커다란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떨고 있었다. 미친년! 미친년! 하는 소리가 고춧가루가 묻은 입을 통해 겨우 새어나왔다. 염색한 지 오래 되어 앞머리에 하얗게 난 어머니의 머리카락에 고기조각이 붙어있다. 그런데 별안간 나는 웃음이 나와 참을 수가 없어 까르르 웃기 시작했다. 내 웃음소리가 적막한 집 안 곳곳으로 퍼졌다.

“나 바보고 미친년이지만 다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당신 남편이라는 사실… 당신이 아버지와 내게 감추고 혼자 속으로 웃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내 몸에서 점을 발견하고 우리 엄마를 동네서 내 쫓은 것이 당신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 엄마 자기가 난 아이 보러 몰래 왔다가 당신에게 쫓겨나 연못에 빠져 죽은 것도 다 알아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은 당신도 모를 거예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내가 열 살 때부터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서울 살면서 당신이 시골에 간 사이 그 짓을 했지요. 주로 당신과 오빠들이 다 잠든 사이 내 방에 몰래 들어와 내 입을 막고 어둠 속에서 그 짓을 했어요. 어느 여름에 오빠들은 다들 놀러가고 당신이 시장에 간 사이 아버지라는 인간이 흰한 대낮에 또 내 방으로 왔지요. 내 치마를 올리고 그 짓을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바닥에 나자빠졌어요. 나는 너무 놀라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감고 있던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방바닥에 다 벗은 채 나동그라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고만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배꼽 밑에 있는 달걀 모양의 점을 본 거예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내 배 위에서 그 짓을 할 때 치마가 벗겨져 달걀 모양의 내 몸에 난 점을 보고 놀란 것이나 내가 놀란 것이나 같은 이유였지요. 그러면 그 후 그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닌가요?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내게 그 짓을 계속했지요. 저렇게 쓰러지기 전까지 그 짓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복수를 하는 것을 마치 내가 복수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당신도 아버지처럼 사람도 아니야!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란 말이예요! 당신이야말로 모자라고 바보이고 미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브라운과 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속이 후련하게 할말을 다 하고 식탁에서 일어나 나오는데, 거기에 작은어머니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내 말을 다 듣고 치를 떨고 있는 작은어머니의 어깨를 나는 가만히 안아 주었다. 작은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몇 년을 아버지 간호를 하느라 기운이 아주 쇠잔해진 작은어머니의 어깨는 뼈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생각하면 아버지 여자 중에 작은어머니가, 비록 한때 아버지 곁을 떠났었지만, 제일 착했다. 욕심도 없었다. 그때도 다만 어머니의 눈총이 너무 따갑고 첩이라는 말을 듣기가 싫어 아버지를 떠났었다. 그 자책감으로 5년을 아무 불만 없이 정성으로 아버지를 보살폈다. 비록 누워 있어 산송장처럼 살아도 작은어머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측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나도 작은어머니를 제일 좋아한다. 나에게 무척 자상하고 따뜻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 준다. 교회도 열심히 데리고 다니려고 애를 썼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으로 내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었다. 작은어머니는 돈을 쓸 데가 없다고 나에게 용돈도 후하게 주었다. 내 모자람을 감싸주고 때로는 용기를 주었다.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고 매일 기도했을 것이다.

울고 있는 작은어머니를 그 자리에 남겨 두고 나는 내 방으로 와 갈아 입을 옷을 챙겨 욕실로 갔다. 뜨거운 물로 온몸에 붙은 육개장국물을 닦아내고 아버지를 비롯해 이 남자 저 남자에게서 묻은 더러운 것을 북북 닦아냈다. 비누칠을 하고 또 했다. 나도 내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늘 집을 나가리라고 결심한다. 희망도 없는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몇 년 전에 잠시 일을 했던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음식 솜씨가 있다고 칭찬하던 주인이 원하면 아무 때나 다시 오라고 했었다. 지난 주에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오라

고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작은어머니가 준 돈과 그래도 어머니가 준 용돈을 모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나는 나가서 혼자 살 자신이 있다.

지금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증도 들었다. 브라운 때문에 흐려졌던 아버지에게 대한 복수의 불길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당장 죽는다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복수를 했다는 후련함으로 웃음이 나왔다. 이번에는 히죽, 까르르가 아니라 깔깔거리고 웃었다. 어머니가 브라운에게 이 용당한 것도 고소했고, 자기가 우리 어머니를 죽게 했다는 죄의식에 괴로워 할 것도 고소했다. 암 그래야지, 사람이라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이 될 수 있지. 나는 샤워가 끝났는데도 웃을 입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웃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났다. 순간 나는 어머니가 잘 듣는 부엌칼로 자살을 하는 것이라 느껴졌다. 아버지와 내 친 어머니를 통해 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달이 유난히 밝은 밤 부엌칼을 갈았다고 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그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을 끊었다고 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온 것이다.

그 칼이 지금도 부엌에 있다는 생각에 나는 허둥댔다.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욕실에서 뛰어 나갔다. 부엌으로 갔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싱크대 옆 서랍을 급히 열었다. 날이 예리하게 선 그 부엌칼이 없어졌다.

“어머나! 아버지!” 나는 다시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다. 방문을 열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철썩 주저 앉았다. 눈앞에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귀에서 태풍소리가 들렸다. 지진이 난 것처럼 집이 흔들렸다. 창문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고 있는 착각에 빠졌다. 수건이 내 몸에

서 떨어져 나가 벗은 내 몸이 드러나는 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혀가 굳어 버렸는지 머릿속 생각이 입으로 나오지 않고 입술만 발발 떨었다.

침대 위에 피가, 빨간 피가 보였다. 아버지 가슴에서 피가 솟아올랐다. 피를 보니 아버지도 사람인 것은 확실했다. 아니 동물도 칼에 찔리면 피가 나겠지.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가고 있었다. 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확인한 방안의 모습은 놀람이었다. 방안의 모습은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 화면 위로 자막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어머니, 작은어머니, 오점순, 미친년…….

어머니도 어머니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처럼 샤워를 하고 나왔는지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입을 짝 벌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눈은 금방 구멍 속으로 푹 꺼져 들어가기라도 한 듯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침대 바로 옆에 죽은 듯 움직이지 않는 작은어머니의 행한 눈동자는 할 일을 다 했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웃고 있었다.

작은어머니도 미쳤다. 그런데… 작은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젖을 물렸는지 상의가 벗겨져 늘어진 가슴이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달밤에 쓱쓱 갈았다던 날이 선 부엌칼이 작은어머니의 힘없는 손에 쥐어져 있었다. 피 묻은 칼날이 불빛에 번쩍거렸다. 어머니가 손으로 작은어머니가 쥐고 있는 칼을 잡으려고 일어서다 다시 풀썩 주저앉았다. 그 바람에 어머니의 몸에서 수건이 떨어져 어머니의 가짜 가슴이 드러났다.

방안의 모든 움직임은 건전지의 수명이 다 된 시계가 멈추듯이 멈추어 버렸다.

나는 침착하게 911에 전화를 건 다음에 내 방으로 와 옷을 입고 미리 싸 두었던 가방과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다.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동네 우체국 앞으로 오라고 했다. 거기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시작한 비극은 아버지로 끝났다. 나도 이제 살아야 한다.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나는 너무 젊고 인생이 아깝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작은오빠가 나의 친엄마와 내 출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머니를 이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를 낳아준 친 엄마는 자기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졌지, 어머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실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졌다. 어머니의 지겨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살 것이다. 작은어머니의 인생도 작은어머니의 몫이다. 조금만 더 걸어 내려가면 우체국이 나오고 택시가 올 것이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지긋지긋했던 이 집을 영원히 떠날 것이다. 나는 가방을 끌고 우체국을 향해 걸었다.

그때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구급차가 어머니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순간 무엇인지 내 머리를 딱 때리며 타이르는 소리를 들었다, 한번도 본 적도 없는 병어리 미친 엄마의 목소리인 듯했다. “나에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준 지금 너의 어머니를 용서해라. 걸어서 너에게 쌀쌀하게 대했지만 그 분은 너를 정말로 사랑 하는 것이란다” 애답은 음성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속에서 울려나왔다. 나는 정신이 멍명했다. 온몸이 경직되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아마 내 가슴속에서 났는지도 몰랐다. 온몸에 땀이 배었다.

생각해 보니 나는 동네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떠들어댄 어머니가 그녀를 밀어 연못에 빠뜨렸다는 말들을 무조건 믿은 것인지도 몰랐다. 어머니도 브라운을 통해 아버지에게서 한번도 느끼지 못 했던 여자의 기쁨을 맛보려 했던 것이라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어머니도 여자였다. 아무리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아버지도 불쌍한 인생이고, 어머니나 작은어머니나 나도 모두 불쌍한 인생……. 그리고 나는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신이 맑아졌다. 이제 오씨네 자식은 나 하나뿐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떠나면 나 하나는 좋겠지만 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꼭 메웠다.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뒤처리를 할 사람은 사실상 나뿐이 아닌가. 아버지 방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어머니와 작은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가야 한다. 나에게도 할 일이 생겼다. 내게 꼭 해야 할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꼈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나는 얼어붙은 듯 발이 앞을 향해 한걸음도 움직이지를 않았다. 불쌍한 어머니, 그리고 작은어머니가 걱정된다. 아무리 서로 정의감이 없었다 해도 엄연히 우리는 가족이었다.

문득 내가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도망자가 되려는 내 자신이 더욱 불쌍해졌다.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 욕망이 뜨겁게 가슴 속에 퍼짐을 느낀 순간 나는 뒤돌아 가방을 질질 끌면서 집을 향해 뛰었다. 숨이 찼지만 나는 더욱 빨리 집을 향해 뛰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나왔다. 아버지의 힘없는 눈에서 비쳐졌던 눈물이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흘린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나는 이제부터라도 삶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눈물은 오늘 다 흘려보내고 다시는 울지 말아야지. 어머니와 작은어

머니의 체념 속에 슬퍼 보이는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소중한 그 곳이 바로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점순이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렸다. 그런데 생각처럼 몸이 빨리 움직여 주지를 않았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젖통이 너무 크니까 몸이 무거워 빨리 움직일 수 없다고 야단치던 어머니의 마음을……. 32년 동안 나를 키워 주면서 “미친년” 소리를 통해 사랑을 표현한 어머니의 마음을…….

산 안개가 걷히면

전지은

선잠을 잤던 탓에 머리가 멍했다. 진한 커피 한잔을 천천히 마셨다. 아이의 샤워 물소리가 집 전체를 울리며 들렸다. 커피 찻잔에 남아 있던 커피를 커다란 머그에 마저 부으며 아이에게 서두르라는 아침 잔소리를 녹음기처럼 틀었다.

“오늘은 좀 늦을지 몰라, 수업 끝나면 친구네에 가 있어. 누구네에 있는지 전화하면 그리로 데리러 갈게. 제인네나 미셸네에 가 있어.”

“어디가? 출근 안 해? 또 결근한다고 전화했구나. 그러다가 잘리는 거 아냐?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또 그런 거야…… 나, 마이클네에 가 있을래.”



강릉 출생.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단편소설 입상. 재외동포문학상 소설부문 입상.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그래 그럼. 마이클네에 내가 전화해 놓을게.”

아이는 언제부턴가 남자 친구 집에 가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 필요 없는 언쟁은 잔소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젠, 스스로 포기하기로 했다.

머그에 담겨 있던 커피는 온기가 사라졌다. 산안개가 자욱한 하이웨이는 시계가 너무 짧고 속력을 내기엔 위험했다. 늘 지났던 낮익은 풍경들은 회색 베일에 감긴 채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다. 길은 생소하기만 했다. 오래된 아스팔트의 흠이 깊은 곳으로 바퀴가 지났는지 차는 몇 번을 덜컥거렸다. 건물 앞에는 차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림자를 감지한 자동문이 열리자, 흠, 욕지기를 동반하는 냄새들이 들어왔다. 울퉁 비위가 상했다. 햇살이 잘 드는 건물 입구의 상들리에는 문이 여닫기는 작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며 아름다운 빛깔들을 천천히 부수어 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안내 데스크엔 오래된 조화들이 낮고 커다란 화분에 꽂혀 있었다. 커다란 꽃잎들 위로 오래된 먼지가 햇살의 밝음을 타고 들어났다. 사람이 들어 섰는데도 누구 하나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건물 속의 사람들은 아주 바쁜 모습으로 켜 걸음을 옮겼다. 양쪽으로 뚫린 복도에는 낡을 대로 낡은 고풍 창연한 꽃무늬 카펫이 깔려 있었다.

서쪽을 향한 복도로 들어서며 병실의 호수를 확인했다. 302호, 문은 반쯤 열려 있다.

“엄마, 나 왔어.”

부르는 소리에도 안쪽에서는 기척이 없다.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선다.

“휴, 이 지린내. ……엄마, 주무시는 거야?”

내 소리에 옆 침대에 누워 있던 할머니가 대답을 한다.

“좀 전에 약을 또 먹었어. 밤새 횡설수설, 한 정신 나갔었지.”

“그럼 할머니도 못 주무셨겠네요? 죄송해요.”

노인 쪽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머리를 조아린다. 나도 모르게 두 손도 모아져 비빈다.

“그래, 한숨 못 잤어. 난 오늘 방을 옮겨 준다는 군. 저 노인네는 독방을 써야지 같이 있는 것은 누구라도 안 되겠어. 해만 지면 그런다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 왔었다.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한밤중의 전화엔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된다.

“아, 네, 알지요. 그렇지만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잘 아시잖아요, 아직 혼자 있을 나이가 안 됐거든요. 내일은 꼭 들려볼게요.”

전화통에 대고도 머리를 조아렸다. 죄인이 따로 없었다.

엄마 쪽의 침대로 다가가 작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는다. 환자가 뒹굴다가 떨어지더라도 뼈가 부러지거나 외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낮은 침대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 닿는다. 환자보호용 가이드 레일엔 어젯밤에 묶어 두었을 끈이 한쪽이 풀려진 채 걸려 있다. 환자가 침대 밖으로 내려오면 자동으로 울리게 돼 있는 경보 장치가 발 밑에서 캄박캄박, 나를 올려다본다.

곁에 누가 왔는지, 두런거리는 말 소리에도 깨지 않고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는 노인. 형클어진 머리는 파마기가 모두 사라진 푸석한 백발이다. 이마의 굵은 주름과 움푹 파인 볼, 까맣게 타 들어간 입술. 세월 앞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다. 얇은 이불을 끌어다 어깨 위로 올린다. 참으로 작고 불품이 없다. 나의 행동을 쳐다보던 옆자리의 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그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다.

백발의 머리카락, 헝클어진 단발, 굵은 주름, 왜소한 어깨.

“뭐라 말하는지 알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나 봐. 어디가 아픈 것인지, 벽에 대고 말하는 것이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 근데, 그대는 딸이유? 이름은 뭐야? 나는 줄리라고 하는데. 다릴 다쳐서 수술을 했어. 집으로 가기 전에 재활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난 당분간만 이곳에 있을 거야. 딸네로 돌아갈 거야, 내가 퇴원하면 말이야, 딸은 24시간 간호하는 사람을 붙여준대, 딸네 집엔 계단이 좀 많아서, 아직 집으로 갈 수는 없고, 보행기를 사용하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의 연습이 필요하대. 내가 여기 온 것은 삼 일밖에 안 돼. 처음 이틀간은 저 노인과 함께 지낼 만했어. 가끔씩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톤이 낮고 조용했거든. 대부분의 시간은 멍청히 창 밖을 내다 보고 있거나, 비디오를 보고 있곤 했어. 해가 저도 잠깐 횡설수설하면 간호사가 곧장 약을 갖다 먹였고 기저귀를 갈아 채우면 곧 잠이 들곤 했지. 근데 어젯밤엔 말이야 늘 일하던 간호사가 아니고 일용직의 낯선 사람이었거든. 아마 약 시간을 놓쳤을 걸…… 기저귀도 안 갈아 주었어……”

“아, 네. 맞아요. 딸이에요. 헬렌이라고 해요.”

나의 짧은 대답에 비해 노인의 사설은 길었다.

심한 악취의 구강 냄새를 풍기며 입을 벌려 입술의 가장 자리보다 훨씬 크게 붉은 립스틱을 그려 바른 후 노인은 복도를 향해 천천히 걸어났다. 보행기를 잡은 손은 작고 주글거리며 얼룩덜룩 검버섯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보행기의 바퀴 소리가 짹짹거렸다.

간호조무사가 식판에 담긴 아침식사를 들고 들어오며 높은 톤의 목소리로 굿 모닝! 하면서 인사를 건넨다. 딸이 왔으니 깨워서 아침을 먹이란다. 작은 미닫이 식의 식탁을 펼치며 ‘엄마, 엄마’ 하고 부른다.

“엄마라니?”

“알아. 환자의 이름이 ‘영, 혹은 영자’ 라는 것 그레도 환자는 ‘엄마’ 하고 부르면 무어라도 반응을 하는데 영, 하고 부르면 전혀 누구를 부르는지 반응을 하지 않거든. 엄마, 엄마, 일어나서 식사합시다.”

영어 속에 섞여 있는 엄마라는 단어는 또렷했다. 엄마가 뒤척거린다. 이불 속에 감추어져 있던 팔이 쑥 빠져 나오며 피멍이 진 팔목이 보인다.

“아니 이게 웬 상처?”

간호조무사는 어젯밤에 생긴 상처란다. 하도 말을 안 듣고 침상에서 내려오려 해서, 약을 먹었는데도 잠이 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단다. 지난밤 근무를 했던 건 제가 아니라고, 담당 의사와 간호 감독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너한테도 전화했다던데? 못 받았어’ 변명이 계속되는 동안 엄마의 양 팔목을 살피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겠구나. 잊어버린 영어 말고 한국말로 소리를 질렀겠지. 가슴으로 파고드는 상처는 얼얼하고 매웠다.

“엄마, 배고파, 아침 드실래?”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침대의 머리맡을 올리는 전기 작동 스위치를 누르자 침상머리는 원하는 소리를 내며 올라간다. 손빛으로 엄마의 머리를 쓰러 넘기자 며칠을 감지 못한 머리카락은 끈적끈적 기름끼가 손가락 사이로 붙어 나오며 한움큼이 빠진다.

“거기다 두고 나가세요. 내가 양치질 해드리고 밥 먹일게요”

“엄마, 여기다 틀니 빼요. 이빨을 밤새 끼고 주무셨으니 얼마나 불편하셨겠수?”

엄마는 순한 아기처럼 순수히 틀니를 빼서 통속에 넣는다. 틀니에 낀 음식의 찌꺼기들이 시궁창 냄새를 내며 울긋 욱지기가 올라온다. 세면대 옆에 붙어 있던 장갑 통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를 찾아 낀다.

틀니를 싱크대로 가지고 가 치약을 잔뜩 붙여 뽀뽀 문지른다. 입천장에 닿았을 부분엔 누런 더께가 끼었다. 다시 구석구석까지 문질러 닦는다. 아무리 영어를 못하는 환자고 보호자가 매일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아니다 싶었다.

엄마는 침상에 기댄 채 나의 손놀림을 쳐다보고 있다. 싱크대의 거울에 비친 엄마의 얼굴이 낯설다.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여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인, 여름이면 발이 통통 붓고 겨울이면 손톱 끝이 갈라지게 일을 했던 여인, 한때는 젊었던 여인. 남의 속옷이든 남의 토사물이 묻어 있던 바지도 상관없이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지 않는 영어에 치여 손짓발짓, 웃음으로 손님을 대하고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는, 자로 잰 듯 성실한 삶을 살았던 여인.

이민의 이유야 어찌 되었든 새로운 땅에는 희망과 꿈이 있었다. 거창하게 자유, 라는 명제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똑똑한 자녀를 두었다고 믿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다. 가능하면 크고 튼튼한 날개를, 비상만을 하는 날개, 떨어지는 날개는 어느 순간에도 용납되지 않았다. 목표가 있고 전진한다는 것은 즐거움이고 삶의 의미이다.

희망의 전부였던 아이들, 딸은 엄마의 일손을 제법 거들었고 유창한 영어로 가끔 있는 손님들과의 분쟁도 곧잘 해결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오랜 낮 가림으로 긴 해 울음을 목놓아 풀어 놓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점점 지쳐갔다. 기름때는 솔로 씻어 내야 한다며 아침 식사 대신 맥주 한 컵을 주욱 들이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배가 불러오고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어느 누구도 의료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극빈자도 아니었다.

남편은 가게일, 바깥일, 집안일에서까지 모두 손을 놓아버렸다. 커다란 마당, 일주일에 한번은 정원사를 불러야 할 만큼 나무도 싹했고 잔디도 고왔다. 여자 혼자 건디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보일러가 망가지고, 옷수선을 하다 말고 작은 픽업 스토어들로 뺏뺏하게 풀을 먹인 와이셔츠나 반듯하게 다려 진 양복들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일까지 엄마의 몫으로 넘어 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을걷이가 끝난 짚단처럼 집 안을 서성거리다가 버석거리는 손끝을, 만삭같이 부른 배를 만지다가 한마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떠나갔다. 꽃상여의 꿈을 꾸고 만장을 든 아이들이 무섭게 변하는 악몽을 꾸며 진땀에 흠뻑 젖어 새벽에 깨기 일수였다.

가끔씩 손님처럼 방문하는 곱슬머리 금발의 사위는 장모의 마디 굵은 손을 두려워하며 서 있곤 하였다. 엄마의 치매는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반동거리던 남동생에게 가게를 맡겨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 아인 제게 지워질 짐의 무게를 가늠해 보지도 않은 채 아버지가 누운 평편한 무덤의 잔디가 모양을 잡기도 전, 홀연히 어디론가 떠났다. 서너 달에 한번 살아 있음의 목소리를 전해 오는 것 말고는 동생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혹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아이가 전화를 걸어오지 않는 이상 알려 줄 방법도 없다. 그냥 어디엔가 살아 있음이 다행일 뿐이다.

“엄마, 식사합시다. 여기, 이빨 다시 끼고.”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엄마는 입을 아, 벌린다. 토스트에 복숭아잼을 발라 작은 크기로 잘라 입 속에 넣는다. 오물거리는 입과 뺨은 동시에 우글쭈글 말이 아니다. 늙은 호박 껍질처럼 흉하다. 한국여자면 누구나 다 한다던 마시지 한번 안 하고, 팩 한번 안 붙여 본 얼굴은 지나간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5볼짜리나 50볼짜리나 로션

은 로션이고 다들 게 없다던 엄마의 얼굴. 남들처럼 마사지에, 팩에, 스파에, 그런 것들을 했더라면 조금은 삶의 흔적들이 감추어 지지 않았을까.

“삼켜 엄마. 그만 씹고 삼켜야지,”

삼키는 작용조차 잃어버린 것일까. 숨 쉬는 것이야 자율 신경조절에 의한 것이고 삼키는 것은 스스로 의지가 있을 때만 행하여 지는 것이다. 음식이 넘어가는 가는 목이 꿈틀 움직인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여인.

“자. 다시 아, 하고.”

엄마는 토스트 두 쪽과 으깬 달걀, 우유 한 통을 마시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먹는 것에만 신경을 집중했다.

간호조무사가 식판을 들고 나가며

“오늘은 참 많이 먹었네. 딸이 와서 그런가…… 이렇게 잘 먹으면 서 왜 다른 날은 음식은 쳐다도 안 볼까…….”라고 내가 듣게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구라도 먹여 드리면 좋을 텐데’, 한마디는 입 속을 맴맴 돌 뿐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다.

한 달이면 몇 번씩 불러오는 탓에 휴가도 동이 났다. 아이의 말처럼 잦은 결근으로 해고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일을 놓을 수는 더욱 없다. 살고 있는 집의 모기지가, 아이와 나를 전액 커버해 주는 직장 의료보험이, 아이의 피아노 레슨과 엄마의 자질구레한 용돈이 발목을 잡고 단단히 조여온다. 족쇄는 일정한 보폭이 아니면 더 단단하게 조여지게 돼 있다. 오렌지 색 죄수복은 갇힌 공간에 사는 사람들만 입는 것은 아니다. 색깔과 모양을 달리했을 뿐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란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때론 사람을 돌게 하는 것인데, 요즈음의 나는 막다른 골목이나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심호흡을 하면 할수록 저리고 시린 가슴을 어쩔 수 없다. 자식의 도리와 내 능력의 한계는 꼭지점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인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밤들이 잦아졌다.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바다 근처이기는 하나 고향의 그곳처럼 잔재미가 없다. 작은 등대가 있고 썩아 썩아 파도 소리를 내며 밀려들던 흰색의 포말들, 잔 조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갯바위들, 시내 버스를 타고 혹은 자전거의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소녀적의 꿈을 키우려 갔던 곳. 늘 그립고 시간만 있으면 가고 싶은 흰 눈이 덮인 고향 바닷가를 못 본 것이 한참되었다. 도시와 붙어 있는 바다의 모래 사장은 활랑하고 길다. 먼 지평선의 아득함으로 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바다를 가져가 버렸다. 드물게 사람의 흔적이 보일 뿐 집 잃은 갈매기 떼와 파도에 밀려 나온 해초들이 꿈의 시체처럼 누워 있다.

엄마를 이곳으로 옮겨놓고는 모든 신경의 축삭은 이쪽으로만 안테나를 세운다. 처음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 엄마, 그래도 나의 일상에 꽤 도움이 되었다. 심한 육체 노동의 후유증으로 관절염을 지병으로 얻어 다리를 조금씩 저는 것 말고는 저녁 때면 밥을 짓거나 찌개를 끓이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국수를 삶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직장 일을 끝내고 돌아와 부엌에 서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았다. 벗어나지 못한 일상들이 짜증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엄마가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면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정도는 할 만했다. 마침 한국 연속극이 나오는 시간이면 그것을 켜놓고 엄마와 둘이 키득거리기도 하고, ‘제, 못 보던 얼굴인데 누구냐?’라고 묻기도 하고, ‘노무현이가 쌍꺼풀을 뭐 어쩐다는 거니?’ 하기도

하고, 한국에 금방 갈 것도 아니면, ‘한국도 꽤 춥네’ 라든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나의 한마디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찌고, 한국의 입시나 북한이 어찌고 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늘 해보는 소리의 끝으로 엄마는 그랬다. ‘옛날에 살던 아파트, 너희들 교육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리고 왔는데……’ 후렴 같은 엄마의 사설이 시작되면 아이는 슬그머니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 준 것도 다 행한 일이었다. 인터넷 채팅이 어눌한 한국어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이니까.

“엄마, 이제 그만 일어나서 샤워하십시오.”

내 말에 엄마는 주섬주섬 이불을 걷고 침상으로 몸을 움직였다. 굵어진 무릎과 가늘어 질대로 가늘어진 다리에 가죽만 뒤틀리고 쭈글거리며 붙어 있다. 지난번보다 살은 더 말라 있다. 엉덩이보다 두 배는 푹직한 종이 기저귀가 젖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엉덩이 밑으로 흘러내린다.

“자, 양말부터 신고.”

엄마는 발을 내민다. 내 손목보다 다 가늘어진 엄마의 발목, 부러질 듯 가늘게 겨우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발톱은 반쯤 부서지고 허영게 갈라졌다. 아이들의 발보다 더 작다. 다음에 올 때 불이 반짝이는 어린이용 운동화를 하나 사 올까 싶었다. 걸을 때마다 반짝거리는 색깔들이 엄마가 더 걷고 싶게 만들 것 같았다.

“자, 이쪽으로 내려 서고.”

엄마의 어깨 죽지에 손을 넣고 몸을 당기자 몸은 너무 쉽게 팔려온다. 엄마가 일어난 자리에는 피부의 비늘이 허영게 떨어졌다. 죽은 세 포의 편린들.

옆집 여자에게 내 직장 전화번호를 준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엄마가 훌쩍 벗은 채로 뒷마당에서 서성거린단다. 달래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 보았으나 막무가내란다. 뭐라고 소리 치는지 알 수 없어 전화를 했단다. 조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젠 무언가 결단을 내야겠다고, 지금까지 잘 견디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옷을 벗고 온 집안을 돌아 다닌 것은 꽤 되었다. 아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은 것도 꽤 되었다. 남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꽤 되었다. 메디케어로 할 수 있다는 가정방문 간호사와 조무사의 방문 횡수도 이젠 그 시간을 다했다. 엄마 혼자 조용히 방안에 들어 앉아 있는 시간은 날 더욱 불안하게 했다. 온 벽에 똥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오줌을 지린 팬티나 이불보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남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뭔가 중얼거리기도 했다.

“자, 내 손잡고 걸어요.”

엄마의 걸음이 서툴다.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절룩거리는 것도 같고 뻗뻗한 걸음은 로봇이 억지로 걷는 것 같다. 걸음조차 많이 나빠졌구나 싶다. 내 발걸음으로 열 발작이면 갈 수 있을 만한 샤워장을 10분 이상이 걸려서야 갈 수 있었다. 샤워장 안쪽의 의자에 앉히기 전에 기저귀를 풀었다. 지린내. 몇 번을 싸고 또 쏘는지 기저지 안의 솜들은 뭉쳐지고 또 뭉쳐지다 못해 조각이 나 있었다. 녀마주이들이 걸치던 포대자루들의 모습이 획 지나갔다. 기저귀를 빼 다시 뭉쳐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샤워기의 손잡이를 내려 물을 튼다. 여태 끼고 있던 일회용 장갑 밑으로는 습기가 가득 차 내 손놀림을 둔하게 한다.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진다. 맨손에. 장미꽃 향내가 나는 샴푸를 듬뿍 따른다. 손톱 끝으로 머리 속을 짹짹 문지른다. 엄마의 고개가 흔들린

다. 미용사가 했던 것처럼 머리의 몇 부분들에 지압을 가한다. 눈을 꼭 감으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물을 머리에 뿌린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엄마는 샤워의자 밑으로 오줌을 지린다. 지린내가 고약하다.

한 두 번 엄마를 방안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출근을 한 적이 있었다. 엄만 종일 얼마나 울며 문을 두드리고 할퀴었는지 온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통통 부어 있었다. 차려 두고 갔던 밥상과 배설물과 찢긴 책장들과 이불, 옷가지들까지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다. 작은 T.V.는 혼자 짹짹거리고 있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엄마를 씻기고 방안을 치우고 새 이불보를 까는 동안 아이는 제 방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아인 나중에 아이팟을 귀에 꼽고 있어서 전혀 못 들었다는 변명을 했다. 그런 날이면 남동생의 연락이 기다려졌다.

우리 집엔 방문객이 없었다. 성당의 반 모임을 하지 않은 것도 벌써 몇 년째다. 새로 선임된 반장은 벌써 몇 번째 전화를 걸어왔지만 답은 늘 똑같다.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어머니가 아파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할 곳이 많아서. 직장의 동료들 중에도 우리 집에 와 본 사람이 물론 없다. 가끔 전화를 걸어와 엄마의 안부를 묻던 아버지의 친구들도 이젠 전화가 없다. 자동 응답기가 돌아가지 않은 것도 한참되었다. 엄마를 찾는 전화도 끊긴 지가 오래됐다. 대부분 성당의 어르신들의 모임에서 연도가 있다며, 온천에 간다며, 누구네 손자 손녀 돌잔치에 오라는 전화들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병원이나 치과에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이와 둘이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전시회를 가는 것도 뜸해졌다. 아이를 샴핑 물의 입구에 내려주고 3시간 후에 찾으러 올게, 혹은 아이의 친구네 집으로 찾으러 가는 것이 내 역할의 주가 돼버렸다. 아이와의 대화란 숙제했니? 피아노는 쳤고? 다음 쿵클은 언제니? 중간고

사는? 기말고사는? 그게 전부였다.

버석거리는 일상, 낙엽 진 앙상한 나뭇처럼 벌거벗고 섰다. 오늘 살아 있음은 그 의미와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 나를 위한 공간, 그건 사치스러운 한 생각일 뿐이다. 여행, 휴가, 그런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가. 나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긴 잠을 자고 싶다. 새벽, 자명종 소리에 깨는 아침 말고 스스로 일어나는 아침, 햇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잔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실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부럽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 아닌, 숲으로 나 있는 길을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 가고 싶다. 천천히 반죽을 손으로 치대며 효소를 넣고 부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븐에 넣어 구운 노릇 노릇한 빵을 만들고 싶다. 색색의 야채를 가늘게 채 썰어 구절판에 담아 하나씩 싸서 먹고 싶다. 오래된 와인 한잔을 친구와 마시고 싶다. 한 시간 이상 전화를 붙잡고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고 싶다. 할인매장에 가서 열 벌의 옷을 입어 보고 스무 컬레의 구두를 신어 보며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고 싶다. 먼지 쌓인 소설 책들의 꺼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거나 잠 들기 전 침대에 기대서 라도 책장을 넘기고 싶다. 오래된 성경 책을 다시 꺼내 쓰다만 필사를 계속하고 싶다.

얇은 수건에 비누 거품을 잔뜩 묻혀 엄마의 몸을 문지른다. 얼굴을 살살 문지르고 어깨와 겨드랑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거리는 젖가슴, 늘어진 뱃가죽, 나란히 정열 된 등뼈의 돌출부위, 체모마저 빠져 버린 음부, 휘어진 다리, 그리고 검게 변해버린 엉덩이. 천천히 부드러운 손질이 끝나자 좀 더 따끈한 물로 행군다. 두드리듯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새 환자복으로 갈아 입히고 사타구니에 흠뻑 파우더를

친 다음 새 기저귀를 채운다. 침상으로 돌아가는 걸음은 좀더 부드럽다. 옆 침대의 노인은 아직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동안 엄마의 침대는 새 시트로 바뀌어졌다. 엄마를 흔들의자에 앉히고 로션을 바른다. 좀 전 샤워를 했던 순서대로 한 부분씩 정성을 다한다. 머리도 반듯하게 빗기고 나비핀 하나를 찾아 꽂아 주었다. 창을 덮고 있던 커튼을 연다. 햇살은 서쪽 창끝으로 조금 들어와 앉았다.

햇살의 끝으로 울컥 울음이 이어진다. 목놓아 통곡을 하고 나면 좀 시원해질 것도 같다. 그러나 울음마저 참아야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

엄마는 가게 일을 접고 혼자 콘도에 사시게 되자 된장국이며 김치 찌개며 콩을 띄워 청국장을 빗기도 하고, 이웃과 상관 없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하셨다. ‘자유의 나라라며……’ 흰 빨래들을 삶아 베란다에 하나 가득 너셨다. 날근날근한 흰 팬티며 생리대같이 생긴 소청 쪼가리들. 행주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셨어도 불상 사나운 그림을 인쇄심 제로인 노랑머리의 이웃들이 환영할 리가 없었다. 그리곤 환기를 한다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먼지를 탁탁 터셨다. 동네를 걸어다니며 잔디밭 가장자리에 나 있는 잡초들을 뽑아 나물이라며 모아 두었다가 내게 건네 주곤 하셨다. 된장찌개를 끓이던 냄비가 넘어 연기를 내자 자동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됐고, 소방차의 출동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엄마는 비워 둔 손님용 방으로 이사를 들어왔다.

온몸에 로션을 바르는 동안 엄마는 아기처럼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겨드랑이 사이로 로션을 바르자 간지럼을 타는 아이마냥 소리를 내어 웃었다. 손 마디마디를 문지르고 팔꿈치를 문지르고 등뼈의 돌출 부위를 문지르고 쭈글거리는 다리와 발가락 하나하나도 문질렀

다. 허영게 갈라진 발바닥을 문지르자 엄마는 금세 잠이 들었다. 편안한 모습이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엄마 침대 주위를 치운다. 손때 묻은 기도서와 묵주를 가지런히 놓고 성모상의 먼지를 닦아 다시 창가에 세운다. 사진틀도 닦는다. 나와 남동생이 어렸을 적의 가족 사진이 들어 있다. 빛이 많아 바랬다. 그 옆엔 엄마와 아버지가 다정히 손을 잡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다. 서울의 아파트, 거실.

희망인지 욕망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 두 남매를 볼모로 미국행을 결심했던 것은. 아버지는 꽤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고 엄마는 말 그대로 전업 주부였다. 아파트의 사이즈도 작지 않았고 학군도 나쁘지 않았다. 그 어느 날의 이야기는 엄마의 허영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호기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린 결국 이민용 가방을 싸고 말았다. 아파트가 팔리자 남동생과 나는 아이들로부터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각 학급에서 이별사를 그것도 아주 멋지게 해야 했다.

“열심히, 한국을 알리며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잘 살다 오겠습니다.”

분명히 돌아간다고 했고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버지의 퇴직금은 세탁소의 권리금을 주며, 친환경적인 그린 뭔가 하는 기계로 바뀌며, 진작에 오염된 땅을 파 있으며, 아버지의 세 끼니인 술을 사는 돈으로 부서져 갔다.

엄마와 아버지의 희생으로 난 잘 버틸 수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환경에 적응해 갔다. 문제는 남동생이었다. 그 아이의 방황은 아버지의 술을 더욱 부추겼고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기엔 그곳은 너무도 멀어져 있었다. 숨막히는 공간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이었다. 노랑머리든 검은 피부든 상관이었다. 제법 잘 적응해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은 자만이었다. 빼격거리는 울림의 소리가 깊어지고

길어지자 난 미련 없이 짐을 쌌고 이번엔 비슷하게 생긴 사람과 살았다. 두 번째의 십 년은 그런대로 건넌 만했다. 어쩌면 아이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엔 그가 떠났다. 젊고 예쁜 금발을 찾아. 오기인지, 자존심인지 그를 잡을 수가 없었다. 단 하나의 위로는 아이가 나와 함께 남았다는 것, 아이의 생김새가 나와 비슷하다는 것.

남동생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술을 먹는 것을 본 적도 거의 없다. 그 아인 소심하고 친구가 없었다. 늘 방에 처박혀 컴퓨터 게임으로 밤을 세우거나 몇 날 며칠을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채 무얼 하는지 제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나 발동이 걸리면 ‘나, 갔다 올게’ 한마디를 던지곤 홀연히 사라졌다. 그리곤 두어 달이 지나야 전화를 한번 걸어 오든가 다시 집에 나타나 며칠씩 긴 잠을 자곤 했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은 더욱 아니고 부모님들의 가게에 나가 도와주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했다. 어쩌다 한번은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던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두 달째 소식이 두절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집으로 연락이 올 테니까, 소식이 없다는 것은 사고가 없다는 이야기야, 엄마가 아직 정신을 아직 놓지 않으셨을 때 했던 말씀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기도 후 동생을 위한 묵주기도를 바치셨던 어머니. 그 기도의 덕택으로 아인 아직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수통을 흔들어 본다. 소리가 나질 않는 것을 보니 다 말라버린 모양이다. 다음에 올 땐 다시 떼와야지, 가방 속에 넣는다.

잠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쓰러 올리고 이불을 턱 밑으로 다시 여민다. 간호사에게 돌아간다면,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전화하

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가능하면 묶어두는 일 같은 것은 삼가 주세요. 팔목 보셨죠? 바쁘겠지만 식사 시간엔 환자가 먹을 수 있도록 좀 돌보아 주시고요. 또 올게요.”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간호사는 낯선 얼굴이다. 또 새로 온 모양이다. 늘 사람이 바뀌니 올 때마다 같은 소리를 일러 두어야 한다. 다음에 올 땐 도넛 한 상자나 초콜릿 박스라도 들고 와야지 싶다. 잘 살펴 주든 아니든 간에 내 어머니를 맡겨 둔 곳이니까. 빨래 보파리를 뒤 트렁크에 넣고 차에 시동을 건다

엄마와는 말 한마디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올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지만 엄마의 말소리는 점점 그 횟수를 줄여갔다. 간단한 ‘그래, 아니’ 정도의 대답이 고작일 뿐, 아이가 잘 있는지, 남동생의 소식은 들었는지 묻지도 않는다. 일상과 점점 멀어지는 기억의 세포들은 삶을 지탱하던 열정을 진작에 놓고 말았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엄마의 모습을 보면 늘 가슴이 쓰리다. 자책감에 허우적거린다. 그럴 땐 차라리 몸을 혹사하는 노동을 하고 싶다. 술에 취했던 아버지가 지금에야 이해가 되는 것은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많아 지면서이다. 내 아이의 인생을 볼모로 잡은 오늘의 나. 좋은 엄마도 아니고 착한 딸은 더더욱 아니다. 도시의 모습 속으로 점점 침잠해 들어간다.

벗어나려 몸부림치면 질수록 더욱 짙어지는 안개는 언덕을 걸쳐 산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이 음습함. 차가운 습기는 피부를 타고 신경을 지나 몸의 깊은 곳까지 전해진다. 살을 에이는 차가움은 겹겹의 옷을 입어도 소름이 돋고 턱까지 덜덜 떨리게 한다. 오늘 아침, 엄마를 만나러 오던 길도 산안개는 짙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자욱했던 회색의 베일에 갇혀, 늘 다녔던 길인데도 낯설고 생소했다.

처음 만났던 도시는 그래도 신비스러웠다. 고향을 닮은 바다 근처이기도 하거니와 산의 중턱쯤에 자리하고 있어 새벽안개가 짙었다. 안개는 서서히 경사면을 타고 올라왔다. 안개가 뒷마당에 닿을 시간이면 엄마와 아버지는 출근을 했다. 짙은 안개가 올라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바람이 많이 불 터이니 창문을 꼭 닫으라고 이르렀다. 아버지의 말은 늘 맞았다. 그런 날은 맑았고 바람은 심했다. 흰 플라스틱 의자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날아올라 근처 나무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은 걸 알면서 왜 이 가벼운 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꼭 내 손이 가야지……’ 엄마는 푸념 끝에 꼭 혀를 끌끌 찼고 후렴은 늘 모노 톤이었다. ‘에비가 그러면 아들이라도 좀 치우든지…’

건물 밖에는 들어올 때보다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다. 서서히 후진을 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온다. 주택지를 벗어나 큰 길로 들어서자 붉은 유도화들이 만개해 있다. 안개가 걷힌 길은 붉은 꽃들이 손짓하며 반긴다. 유도화는 독이 강하다. 옛날 궁중에서는 뿌리를 다려 사약으로 쓰기도 했으며 줄기를 잘라 젓가락으로 사용했던 수학여행 중의 학생이 죽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다행히 붉은 꽃들은 큰 길의 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유도화가 만개한 하이웨이 5번과 99번을 보며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유도화가 가로수로 서 있는 이유는 물만 잘 주면 사시사철 어디서나 잘 견디는 꽃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제일 적절하단다. 뿌리 내는 것도 꺾꽂이로 할 수 있어 그 양을 늘려가는데 또한 최적이란다. 가지를 툇툇 잘라 일렬로 꼽아놓고 굵은 스프링 쿨러로 물을 주었을 때를 상상한다. 우리 가족도 처음엔 잘 견디었

고 제법 뿌리도 든든하게 내렸다고 생각했었다.

시계를 본다. 아직 점심 때도 되지 않았다. 차는 하이웨이를 빠져 나와 대형 매장 앞에 섰다. 써 가지고 온 메모지를 펼친다.

다음 준비물; 리취한 로션, 냄새 좋은 가루분, 흡수성이 좋은 기저귀, 병 생수, 예쁜 머리 핀, 꽃무늬 용 잠옷, 따뜻한 슬리퍼와 양말, 질 좋은 비누, 틀니를 빼 놓을 상자와 틀니용 치약, 한국 비디오, 포장된 잣죽, 송이 죽, 햇반, 봉지에 든 김 부순 것, 엄마 기도서 중에서 한 권, 성수-꼭, 잊지 말 것. 사이즈 5의 어린이 용 운동화(걸을 때 빨간 볼 들어 오는 것으로). 지난번 준비물 목록과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그래도 꼭 메모를 해두는 것은 언제부턴가 집에서든 직장에서도 스스로의 기억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방과후 마이클네에 가지 않아도 돼. 엄마가 제 시간에 학교 앞에서 픽업할게. 그리고 오늘은 피아노 레슨 가는 날이야, 알지?>

서서히 주행을 시작하는데 전화는 메시지가 왔다면 Ding Dong 거린다. 전화를 열자 화면에 메시지가 뜬다.

산이 나를 버린다

산이 나를 오라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갔더니

산마저 나를 돌아가라 한다

저 산은 자꾸만 내게서 돌아 놓고

문득 산 안개 가려 길 보이지 않네

- 퍼 온 글 -

도시를 지난 하이웨이는 산의 중턱인지 바다의 초입인지 알 수가 없다. 전화 메시지로 들어온 시 한 자락은 누가 보내 온 것일까. 언제 또 이 길을 돌아올까, 당장 오늘밤일 수도 있고 한숨 돌린 몇 주일 후 일 수도 있겠지.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올까, 아니면 또 전화로 불려져 올까. 머리 속은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았어도 발은 깊이 가스 페달을 밟는다. 차는 서서히 속력을 낸다. 백미러 속으로 풍경들이 따라온다. 안개 걷힌 길가의 유도화들이 물결치며 흔들린다.